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끔직한 살인까지 정신병력 용의자 윈체스터 거리 활보

경찰, 여대생 살해 '야오' 문제로 20여차례 출동
2013년 칼 들고 집안 배회, 부모도 못 알아 봐
윈체스터 서장 정신병 대책 사회적 논의 바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윈체스터 공립도서관에서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야오(23)가 6년동안 수차례 경찰의 개입으로 병원에 호송됐지만 격리되지 않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윈체스터 경찰은 야오에 관련된 24건의 경찰보고서를 3월 7일 공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윈체스터 도서관 살해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6년간 경찰은 야오가 저지른 온갖



윈체스터 공립도서관에서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야오(23)

이상한 행동으로 출동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협 했으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 빈번하게 그를 관찰해 왔음에도 정작 공공장소에 사냥용 칼로 살해하는 끔직한 사건이 발생

할 때까지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이다. 경찰은 수차례 그를 병원에 호송했지만 병원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왔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었던 것이다.

경찰 보고서는 지난 2012년 윈체스터하이스쿨의 한 동료학생이 야오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그는 버지니아 텍 총기난사 살인범 조승희의 비디오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윈체스터하이스쿨은 "최근 제프리 야오가 교사들의 우려를 살만한 일련의 행동을 하고 있다" 며 야오에게 정신과 의사의 문제없다는 진단서를 첨부 ▶▶8면으로 계속

<스타★인터뷰> 관련 기사 2,3면



보스톤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주연 한서혜

11일 서머타임 시작 2시를 3시로



한국과의 시차 13시간으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올해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이 3월 둘째 주 일요일인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새벽 2시는 새벽 3시로 1시간 빠르게 조정된다. 토요일 밤 잠들기 전에 시계를 한 시간 앞으로 돌려놓고 자는 것이 좋다. 시간을 앞으로 돌려야 할지 뒤로 돌려야 할지 혼동이 되면 'Spring forward Fall back' 으

로 기억하면 쉽다. 서머타임 기간에는 보스톤을 비롯한 미동부 지역의 한국과의 시차가 현재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든다. 가장 좋은 점은 일몰이 지금보다 한 시간 늘어나 야외활동 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1시간 정도 더 갖게 된다. 그러나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일어나야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Weekly Special

보스톤 출발-인천행
왕복항공권 최저가 요금

\$840~ (세금 포함)

상당문의
(617) 424-8956
(866) 619-4223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ENGEL & VÖLKERS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보스톤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주연 한서혜 인터뷰

“줄리엣, 평생하고 싶었던 역할이라 특별하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발레단의 발레시즌이 시작됐다. 보스톤발레는 올 봄 두번째 작품으로 존 크랭코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3월 15일부터 4월 8일까지 보스톤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발레를 좋아하는 한인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될 듯하다. 보스톤발레의 수석무용수(Principal Dancer)인 한서혜씨(29)가 21년만에 처음으로 줄리엣 역을 맡아 공연한다. 한서혜 씨에 따르면 “전문 무용수가 된 이후 가장 해보고 싶었던 역할” 이 바로 줄리엣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안무는 연극적인 표현을 강조한 스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존 크랭코의 작으로 보스톤발레단은 2008년 초연했다. 이 발레는 1962년 스투트가르트에서 초연되어 서유럽과 미국 등 서구의 로미오와 줄리엣 발레의 고전이 된 발레다.

익숙한 스토리이지만 세르게이 프로코피예브의 아름다운 음악과 한서혜씨의 발레로 표현되는 연기가 어우러져 로미오와 줄리엣을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지도 못하고 소리도 낼 수 없이 오로지 발레의 몸동작과 표정으로만 연기에 내는 줄리엣을 지켜보는 것도 묘미

다. 한서혜씨는 보스톤 발레의 수석무용수인 미사구라나가와 공동으로 줄리엣 역을 맡는다. 한서혜씨가 주연으로 첫 무대에 서는 것은 3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공연이다.

한국종합예술대학을 졸업하고 보스톤국제발레경연에서 우승하면서 보스톤 발레에 진출한 토종 발레리나 한서혜씨는 한국과 보스톤 발레단의 가교역할을 맡고 있다. 몇 년전 입단한 후 배 최지영 씨는 솔로리스트를 맡고 있다. 이승현, 이수정씨 외에도 올 가을 최소 1명의 한국 무용수가 입단할 예정이다. 한인들의 뜨거운 관심이 필요한 때다. 다음은 3월 5일 한서혜씨와의 전화 인터뷰다.

▶2016년 4월 프린시플 댄서로 승격했을 때 인터뷰 이후 2년 만이다. 그동안 프린시플 댄서로서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모든 공연에 출연했다. 다만 비런 점이 있다면 프린시플이 된 이후 솔로리스트 때보다 주인공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이다.

▶발레리나로서 가장 좋아하는 역은 무엇인가?



보스톤발레의 수석무용수(Principal Dancer)인 한서혜씨(29)가 21년만에 처음으로 줄리엣 역을 맡아 공연한다. 사진은 한서혜씨가 공주역을 맡은 “잠자는 숲속의공주(The Sleeping Beauty)”

지금까지 역할을 맡았던 것 중에 백조의 호수에 나오는 주인공, 백조와 흑조 역할이다. 평생하고 싶었던 역할로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역할이다. 줄리엣 역할을 처음으로 해본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역을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처음으로 맡은 줄리엣 역이라 공연을 하면 어떤 느낌일지 나 자신도 많이 기대가 된다. 전문 무용수가 된 이후로 줄리엣을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줄리엣이라는 소설 여주인공은 캐릭터 자체가 어린 나이에 소녀다. 15 ▶▶3면으로 계속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보스톤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주연 한서혜 인터뷰

▶▶2면에 이어서

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15세 미만의 연기를 하려면 어린 나이에 할수록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전문 무용수가 됐을 때는 20세가 훨씬 넘어버린 나이였다. 더 나이를 먹기 전에 발레를 그만 두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다. 40이 다 되어서 그 춤을 추게 되면 원작보다는 성숙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두번째로는 클래식 발레라고 하기에는 연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발레다. 무용수에게는 큰 숙제 같은 공연이다. 춤을 추면서 연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소리지르고 울 수도 있고 뛰어 다니는 상황에도 발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연기가 제한되어 있다. 소리를 지르는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그런 숙제가 많은 발레이



기 때문에 항상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연습할 때 가장 신경 쓰는 파트가 어디인가?

연기를 생각한다. 줄리엣은 비록 15살이지만 시집을 가고 아이를 갖고 할 나이기 때문에 마냥 어린 역만은 아니다. 줄리엣 엄마 조차도 줄리엣의 나이에 줄리엣을 가졌고 젊고 아름다운 딸을 질투한다. 항상 철없고 발랄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연기만은 아니다. 사랑이 뭔지 알고 사랑을 위해 죽는 그 중간이라는 것을 찾는 것이 참 어려웠다.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감상 포인트는?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미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발레는 음악이 아름답다. 이번 공연을 위해 음악을 주로 듣고 있는데 눈을 감고 음악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설렜 때가 있다. 음악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이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작곡가의 음악은 당시에는 인정 받지 못했다. 연기가 들어가는 발레가 시작되면서 한참 후에 인정을 받은 작곡가다. 무용수들의 연기와 음악에 중점을 두고 보면 좋겠다.

▶상대역으로 가장 편안한 남자 댄서는 누구인가?

모든 무용수와 호흡을 맞춰가기 때문에 모든 파트너가 최고일 수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수석 무용수인 그루지아 출신 라사 코자슈빌



리와 호흡을 맞춘다. 댄스가 많은 공연을 함께 했다. 2016년 해적이라는 현대 발레에서도 함께 했는데 호흡이 잘 맞는 믿음이 많이 가는 파트너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로미오와의 파트너링이 많다. 남자 무용수가 이끌어야 하는 역할이 많은데 이에 최적화된 파트너다.

▶보통 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얼마 정도 연습을 하는가?

연습을 시작한 것은 2017년 10월달부터다. 10월달부터 다른 작품들과 병행 했기 때문에 총연습 기간은 두달여 정도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또는 목표가 있는가? 항상 꿈은 많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발레를

너무 너무 사랑하지만 미국나이 29세로 21년을 했다. 그렇게 긴 시간을 해왔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발레가 전부이다 보니 새로운 것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다. 보스톤에 오게 됐으니 공부를 하고 싶다. 발레가 아닌 다른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 법 공부가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지만 말이다.

▶결혼을 했다고 들었다.

한국에서 1월 8일 결혼식을 올렸고 3월 5일 보스톤 시티홀에서 선서를 하고 결혼 증서를 받았다.

editor@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prilg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March 17, 2018

Class	Time	3/17/18 - 5/26/18	Sat
SAT II / MATH IIC Prep	9:00 AM - 11:00 AM	3/17/18 - 5/26/18	Sat
Chemistry AP/ SAT II Prep	1:00 PM - 3:00 PM	3/17/18 - 5/26/18	
Biology AP/ SAT II Prep	3:30 PM - 5:30 PM	3/17/18 - 5/26/18	
SAT II / MATH IC Prep	6:00 PM - 8:00 PM	3/24/18 - 5/26/18	

SAT Plus Summer Schedule 2018

July 2018

Class	Time	7/9/18 - 7/27/18	Mon-Fri
SAT I Prep	8:00 AM - 12:00 PM	7/9/18 - 7/27/18	Mon-Fri
Biology Preview	1:00 PM - 3:00 PM	7/9/18 - 7/30/18	Mon/Wed/Fri
Chemistry Preview	4:00 PM - 6:00 PM	7/9/18 - 7/30/18	Mon/Wed/Fri

August 2018

Class	Time	8/6 - 8/24	Mon-Fri
SAT I Prep	8:00 AM - 12:00 PM	8/6 - 8/24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8/6 - 8/24	Mon-Fri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로드아일랜드한인회 뉴잉글랜드서 유일하게 3.1절 행사

뉴잉글랜드한인회(보스톤한인회)는 한인회장 공식으로 행사 못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가 주최한 99주년 삼일절 기념 행사가 크랜스턴 소재 로드아일랜드 제일한인교회 소강당에서 2018년 3월 4일 열렸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어 URI에 다니는 한인 2세 김지선 학생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완전한 한글 발음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한 모습에 큰 갈채를 받았다.

김용현 총영사는 페이스북에서 "한인 2세 김지선 여대생이 최남선 선생이 지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뜨뜻뜨뜻 읽었지만 대견하였다" 고 칭찬했다

이재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옛 시를 회상하며 삼일절을 이곳 먼 이국에서 여러분들의 도움과 격려로 치르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김용현 총영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대독했다.

매년 삼일절 마다 하는 특별 강연에 올하는 이충시 박사가 "삼일절 회상 및 우리의 각오" 라는 제목으로 삼일절이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가 주최한 99주년 삼일절 기념 행사가 크랜스턴 소재 로드아일랜드 제일한인교회 소강당에서 2018년 3월 4일 열렸다

이루어진 세계적 배경과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진 배경, 순국 열사들의 독립을 향한 투쟁 등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강연했다. 정정욱 노인회장의 만세삼창과 삼일절 노래를 마지막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번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의 3.1절 행사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유일한 3.1절

행사였다. 그동안 3.1절 행사는 각 한인회 주관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뉴잉글랜드한인회(보스톤한인회)가 한인회장 공식으로 없어지면서 지난해에는 보스톤총영사관이 주관해 진행했었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2014년부터 참가인원의 저조로 기념식을 개최하지 않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산악회 정기 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는 3월 17일 토요일 뉴햄프셔 마운틴 아발론 (3442 ft.)을 등반하는 정기산행을 나간다.

이번 산행의 왕복 산행거리는 3.6마일이며, 오름높이는 2635ft 산행시간은 약 4-5시간 정도이다. 난이도는 3-4.0으로 보통 수준이다.

겨울 산행이니만큼 배낭, 등산화, 각반(Gaiters), 트레킹폴, 아이젠(MicroSpikes or Crampons), 고글, 스패츠, 방한복, 방풍의, 장갑, 털모자, 비상용 양말, 식수, 간편중식 등 겨울철 산행 준비를 해야 한다.

집결지는 Park&Ride Exit2 of RT93으로 오전 7시 15분까지 도착해야 한다. 산행당일 회비 \$20을 지참해야 한다.

산행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3월 15일(목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마감해야 참가가 가능하다. 신청 및 문의는 978-569-3256 (김상호)로 할 수 있다. 날씨 관계로 산행지 변경 및 4명 미만인 경우 취소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문의해야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新홍삼정

Special Promotion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천녹정 구입시
천녹정 30g 2개 무료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903

바잉턴 전 하버드 교수 한국 유사역사학 주제 발표

BU 아시아센터 < 동아시아고고학 포럼>에서 발표 예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내 한국 고대사 전문가중의 한 사람인 마크 바잉턴 전 하버드 교수가 보스톤대학(BU) 아시아센터의 포럼에 참가해 한국의 유사 역사학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경쟁구도의 유산, 아시아의 기념물, 정치, 추억>이란 제목으로 3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개최된다. 바잉턴 교수는 4명의 주제 발표 첫 순서로 “문화적 전용과 무기화된 유사역사학: 한국 상고사의 어두운 면”이란 제목을 가지고 한국의 유사역사학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마크 바잉턴 교수는 <한국 고대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한사군 낙랑이 평양에 주둔했다는 내용의 서적을 펴냈다가 한국의 유사역사학자들의 공격과 한국 국회의 압력으로 인해 이를 2017년 1월 접어야만 했다. 바잉턴 교수는 현재 케임브리지 한국학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바잉턴 교수는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미국인 교수 단 3명중의 한 명이다. 한국교류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의 후원으로 <한국고대사 프로젝트>



미국내 한국 고대사 전문가중의 한 사람인 마크 바잉턴 전 하버드 교수가 보스톤대학(BU) 아시아센터의 포럼에 참가해 한국의 유사 역사학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를 진행하며 약 7년동안 고대사 강의, 워크샵 등이 이뤄졌고 6권의 영문 고대사 관련 서적도 발간됐다.

마크 바잉턴 교수의 이번 발표는 외국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유사역사학의 문제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BU 포토닉스 빌딩 룸 203호에서 열린다.

Photonics Building, Room 203
8 St. Mary's Street, Boston University
hsb@bostonkorea.com



작년 가을 수강생들 모습

커먼웰스 세미나 통해 정치 "실질적 정보 경험"

차세대 정치 지망생을 위한 세미나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비영리단체 커먼웰스세미나(MassCS)가 차세대 공공기관 지망생들을 위해 개최하는 2018공공정책 세미나가 매사추세츠 주정부 청사와 부속관에서 지난 1월31일부터 3월1일까지 진행되었다.

사뮈엘리치 전 주하원의원, 레버렛 워 디렉터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참여한 20여명의 각 커뮤니티의 차세대 법률가, 금융인, 비영리법인 리더, 학생 등의 참가자들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다양한 기능과 활동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영향력과 권의 그리고 지역

사회 리더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세미나를 들었다.

이번 세미나에 참가했던 한미정치력신장연대 김성혁 대표는 “주의회, 정부 예산담당자, 언론전문인, 로비스트 등이 인도한 세미나를 통해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경험할 수 있었다”며 “한인 차세대들의 제한된 주류 사회진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기관 진출의 주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훈련 활동에 한인 커뮤니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sungh999@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가주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한국 학사 및 석박사 장학금으로 유학 가능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사업 지원자 모집 한국서 학,석,박사 과정 이수 원하는 2세 대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한국에서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자 하는 한인 2세들이 장학금을 지원받고 유학할 수 있는 장학제도의 지원자를 모집한다.

재외동포재단은 2세 인재들에게 모국 교육기관 수학 기회를 부여해 동포 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매년 '초청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이 장학프로그램

지원 마감일이 4월 6일이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대·석·박사 과정 전까지 미국에서 모두 이수한 학생들이다. 대부분 2세들에 해당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조기유학을 한 학생도 초·중·고·대 1학년부터 고교과정까지 이수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2018학년도 9월 학기 또는 2019학년도 3월 학기 국내대학 학사 과정 및 대학원 석·박사과정 입학 예정

자가 대상이다. 학사과정은 35명, 석·박사과정은 45명이 선발된다.

지원자는 오는 4월 6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진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추천서 1부 △서류약서 △건강증명서 △여권 사본 △유공동포 후손 증빙서류 사본 등을 주보스톤 총영사관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는 Korean.net에서 지원서를 접수한 후 출력해 보스톤총영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졸업증(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거주국 해당기관에서 발부된 제출서류는 원본과 함께 한글로 번역·공증, 영사확인 받아 제출해야 한다.

최종선발 및 합격자는 입학하기부터 4년간(8학기) 장학금 및 매월 90만원의 생활비, 거주국과 인천공항 간 일반석 항공료, 월 3만원 상당의 보험 등을 지급한다. '접수관련 문의는 보스톤총영사관 (bjkim12@mofa.go.kr), 사업개요의 문의는 재외동포재단 (scholarship@okf.or.kr)에 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케이팝과 클래식을 한꺼번에 라이브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귀에 익숙한 케이팝과 클래식 음악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케이팝 및 클래식 콘서트는 황지은씨가 뮤직 디렉터로서 기획한 콘서트다. 황지은씨가 작곡한 오라트리오 "여왕의 눈물(The Queen's Tears)"를 챔버뮤직으로 연주한다. 소프라노 펠리카 첸은 모짜르트의 "기뻐하라, 환호하라(Exsultate Jubilate)"를 부른다.

이번 콘서트는 보스톤제일교회(First Church in Boston)에서 황지은 씨를 초청해 이뤄졌다. 황 씨는 많은 사람들이 케이팝 공연을 원한다는 점에서 10명의 뮤지션들을 초청해 케이팝 콘서트도 함께 개최한다.

약 절반은 클래식 연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케이팝 콘서트로 구성될 계획이다. 뮤지션들은 태양의 눈코, 입, 아이유의 밤편지, 워너원의 에너제틱, 크러쉬의 아름다워,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마마무의 피아노맨 등을 선사할 계획이다.

콘서트는 3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보스톤제일교회(First Church in Boston)에 개최된다. 보스톤제일교회는 66 Marlborough St, Boston, MA에 위치해 있다. 입장료는 무료다.

황지은씨는 "우리는 이번 콘서트 이후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연주하고 싶다. 와서 우리의 콘서트를 보고 응원해 달라. 기부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제21기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okfellowship) 모집공고

선발인원 학사 35명, 석·박사 45명 (총 80명)

접수기간 2018.3.6 (화) ~ 4.6 (금)

※ 재외공관 마다 접수마감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공관에 문의

노인회 3월 셋째주 사랑방모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 노인회는 폭설관계로 첫째주 사랑방 모임이 취소되자 경경순 씨 팔순잔치를 3월 셋째주 사랑방 모임으로 순연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경순 씨의 팔순을 맞아 딸 부부인 김은주, 이창경 씨가 점심식사를 준비한

다. 셋째주 사랑방 모임은 오전 9시부터 커피타임이 있으며 9시 반부터 유영심 전회장의 난타, 라인댄스, 이현경 한국학교협의회회장의 카톡 설치하기, 박은희 강사의 요가 강연이 이어진다. 점심 식사후 탁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

행된다. 한편, 4월 첫째주 사랑방 모임에는 올스턴 서울설령탕의 점심 식사 대접이 있다. 서울설령탕측은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눈물과 감동을 전한 한국 가곡의 밤

(렉싱턴=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기자 = 3월 4일 일요일 오후 4시, 렉싱턴에 위치한 풀른 커뮤니티 교회에서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주최한 <한국 가곡의 밤> 음악회가 열렸다. 보스톤에서 유학 중이거나 프로페셔널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젊은 성악가 6명이 피아니스트 임청씨와 함께 호흡을 맞춰 총 14곡의 한국 가곡을 연주하였다. 아늑한 예배당에서 꾸며진 이날 음악회에는 약 18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하여 젊은 음악인들의 연주에 큰 박수를 보냈으며, 오래간만에 듣는 한국 가곡과 고향 생각에 감회에 젖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모든 출연자가 함께 나와 중창으로 부른 <보리밭>으로 시작된 음악회의 1부에서 소프라노 김정민은 고운 목소리와 우아한 매너로 김동진 작곡 <신아리랑>과 김주원 작곡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를 불러 그리움과 안타까운 헤어짐을 애절하고도 아름답게 노래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따뜻하고 정감있는 목소리의 베이스 바리톤 김승윤이 백병동 작곡 <남으로 창을 내겠소>와 신동수 작곡 <산아>를 불렀다. 첫 곡에서는 소박하고 해학적인 시의 분위기를, 두번째 곡에서는 고향을 두고 떠나는 안타깝고 비장한 마음을 잘 표현하여 감동을 주었다.

세 번째 순서로는 소프라노 유윤정이 윤이상 작곡의 <고풍의상>과 진규영 편곡의 <밀양아리랑>을 들려주었는데, 콜로라투라 음색이 빛을 발하는 높은 음역대에서 적절하고도 섬세한 표현이 인상적이었으며, 빠른 부분과 느린 부분의 대비를 잘 살려 생동감 있는 연주를 들려주었다.

휴식 시간 후 이어진 2부의 첫 순서는 테너 이규영이 박관길 작곡 <산노을>과 조두남 작곡의 <벚꽃노래>를 불렀다. 느린 템포의 단조 음

악인 첫 곡에서는 외로움과 쓸쓸함의 정서를, 리드미컬한 민요풍의 두 번째 곡에서는 시원한 고음을 선보이며 테너 특유의 매력적인 음색을 잘 드러내 박수를 받았다.

소프라노 유지은은 김동진 작곡 <진달래꽃>과 이원주 작곡 <베를 노래>를 불렀는데, 안정된 호흡과 풍부한 성량, 섬세한 프레이징을 통해 어려운 음악을 능숙하게 소화하며 완성도 높은 연주를 들려주었다.

솔로 무대의 마지막 순서였던 바리톤 유영광은 힘이 있으면서도 서정적인 목소리로 김대현 작곡의 <사비수>와 임금수 작곡의 <그대 창 밖에서>를 불렀다. 정확한 디션과 뛰어난 전달력으로 단순한 곡에서도 듣는 이들이 끝까지 집중하게 만드는 힘을 보여주며 청중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체 순서의 마지막 곡은 임금수 작곡의 <강 건너 봄이 오듯>이 중창으로 연주되었다. 연주자들은 때로는 화음으로, 때로는 단선율로 소리를 합치며 아름다운 앙상블을 선사했다. 앙코르 곡으로는 정지용 작사 김희갑 작곡 <향수>가 연주되어 듣는 이들에게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곡 중에 나온 유영광과 김승윤의 듀엣 부분은 푸근하고 감미로웠다.

피아니스트 임청씨는 첫 곡부터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각 곡의 묘미를 적절하게 살리며 성악가를 서포트 하고, 때로는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음악적인 그림을 펼쳤다. 특히 멜로디가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전주, 간주 및 후주 부분에서 뛰어난 표현과 음악성이 돋보였고, 강약 및 분위기의 대조도 확실하게 표현해 주었다.

참석한 청중들은 “보스톤에서 오래 살았지만 한국 가곡의 밤은 처음이었다. 저절로 눈물이 난다. 너무나 감동적이다”, “이런 음악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보스톤에 이런



보스톤에서 유학 중이거나 프로페셔널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젊은 성악가 6명이 피아니스트 임청씨와 함께 호흡을 맞춰 총 14곡의 한국 가곡을 연주하였다

게 훌륭한 연주자들이 많이 있는 줄 몰랐다”는 소감과 감격을 전하였다.


미국인 스테판 가벨(Stefan Gavell)씨는 “한국인 부인과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한국 가곡은 오늘 처음으로 들어보았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도 각 민족의 정서를 살린 가곡들이 있는데, 이 음악회를 통해 한국적인 정서가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영어로 번역

된 가사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 이야기했다.

이번 음악회는 그 동안 한국 가곡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던 보스톤 한인 사회에 아주 반가웠던 음악회라 평가할 수 있겠다. 한미예술협회는 이날의 공연 실황 일부를 조만간 유튜브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선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윈체스터 공립도서관에서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야오(23)가 6년동안 수차례 경찰의 개입으로 병원에 호송됐지만 격리되지 않고 자유스럽게 거리를 활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고된 비극, 윈체스터 타운 정신병력 위험인물 방치

▶▶ 1면에 이어서

토록 했다. 학교 관계자는 그의 락커룸을 수색했고 경찰도 그를 수색했지만 당시 위험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정신과 의사도 그가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것이 야오와 윈체스터 경찰과의 만남의 시작이었다.

2012년 그는 뉴욕소재 대학에 진학했으나 11월 2일 대학당국은 그의 반사회적 행동과 위생 불량을 이유로 퇴학조치 시켰다. 좀더 심각한 정신이상 징후는 2013년 발생했다. 2013년 1월 그는 5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나 상당 시간동안 쫓아다녔다.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다. 2달 후인 3월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의 아버지에게 법적절차를 밟으라고 조언했다.

2013년 11월 야오 아버지는 경찰서를 찾아 한밤중에 야오가 6인치의 식칼을 들고 집안을 배회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의 아버지는 야오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제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밤중에 출동해 다락에서 자고 있는 그를 발견해 윈체스터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당시 벨몬트 소재 맥린 정신 병원에 통보했으나 맥린 병원은 환자를 받기 전 다른 병원 응급실의 진단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해 윈체스터병원으로 호송했었다.

2014년부터 야오는 온갖 위협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경찰보고서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병원으로 가도록 조치하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경찰은 이미 그가 아주 익숙해져 있었다. 2016년 그는 경찰서를 찾아 담당 의사가 공기흡입구로 화약약품을 넣어 그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한 선임 경찰은 경찰들에게 경찰 통신으로 “야오가 약이 떨어졌다”며 경고를 하도록 할 정도였다.

2017년 한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고객은 경찰에 전화해 야오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다고 신고했다. 잠시 후 한 피자집의 직원은 “아시아 남성

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그곳에서 야오를 발견했다. 경찰은 그를 윈체스터 병원으로 호송했다.

경찰 보고서를 종합하면 야오는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사건을 저지할 수 있는 잠재요인이 충분했지만 정신병원에 수감되지 않았다. 2018년 2월 24일 그는 10인치 사냥용 칼을 들고 윈체스터공립도서관을 향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던 22세의 여성 딘 케니 스트리커 씨는 그의 칼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손에 칼 대신 총이 들렸더라면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윈체스터 경찰서 피터 맥도넬 서장은 “경찰은 수차례 지역 병원에 정신 감정을 의뢰기 위해 호송했다”고 밝히고 “이번 경찰 보고서 공개로 인해 미국사회에서 정신건강 대책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폭설 강타 매스주 32만여 가구 단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주내 32만여 가구가 폭설로 인해 3월 8일 단전 상태에 놓여 있다.

매스 최대 전력공급사인 내셔널 그리드는 8일 오후 3시 현재 259,981 가구가 단전 상태이며 또다른 전력 공급사인 에버소스는 64,950가구가 단전 상태라고 밝혔다.

전력회사들은 현재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력 공급에 수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지난 3월 2일에도 폭풍과 폭우로 인해 45만여 가구가 단전됐으며 약 700여 가구만

남겨두고 거의 복구가 완료된 시점이었다.

전력회사들은 특히 쓰러진 전봇대에 걸린 전선을 만져서는 안되며 자가 발전기 연결을 원하는 주민의 경우 전문 전기면허를 가진 사람만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재난대책본부는 매사추세츠 북쪽 해안가와 서쪽이 일부 타운은 전체가 전력공급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웨스트 뉴베리의 경우 99% 주민이 단전의 고통을 겪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수산물 박람회 25한국업체 참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북미 최대의 수산물 박람회인 보스톤시푸드엑스포가 보스톤 서머스트리트 소재 보스톤컨벤션박람회센터(BCEC)에서 11일 일요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수산물 산업 관련된 사람이라면 놓치지 않아야 할 이 수산물박람회에는 세계 50여개국 1340여개 업체

가 참가하는 세계적인 수산물 박람회다. 한국의 수산물 관련 25개 업체가 올해 참가한다.

이 박람회는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으며 수산물업 관계자에게만 공개된다. 전시장의 경우 10일 이전에 티켓을 구입하면 \$50이지만 11일부터는 \$80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북부보스톤연합감리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감사 및 임직예배

일시: 3월 18일(주일) 오후 4시
장소: 북부보스톤연합감리교회 예배실
244 Lowell Street, Andover MA 01810

<임직 장로 및 권사>
원로장로: 백이태, 원로권사: 윤은상
신천장로: 김복경, 신천권사: 정대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북부보스톤연합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온지 마흔 한해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서로서로를 축하하며 기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올해 예배는 장로, 권사의 임직예식이 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는 분들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부 보스톤 교회
담임목사 최진용 외 온 교우 일동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MICROBLADING & PERMANENT MAKEUP

반영구 메이크업
자연눈썹
아이라인
입술

MA Licensed permanent cosmetics Artist

Jin 978.935.1395
52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원장: 김진구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제리 브라운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민법이 미국을 찢는다 캘리포니아주 vs. 미정부

"자기들만 공감하는 국경개방 철학 진전시키겠다고..."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정부 간 '말의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CNN, 더힐 등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정부 관계자들을 "과격하고 단주의자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경찰 행사에 참석해 "이민국 요원들을 나태시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하지 말라"며 친(親)이민 진영이 "국경과 이민법을 없애고 몇 안 되는 과격 극단주의자들만 공감하는 자신들의 국경개방 철학을 진전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세션스 장관은 특히 최근 주민들에게 "곧 연방기관의 이민 단속이 있을 것

"이라고 공개 경고를 한 오를랜드 시장 리비 샤프를 향해 "국경개방 정책을 홍보한답시고 감히 사법당국 관계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강력 비난했다.

또 "캘리포니아는 연방 사법당국을 방해하기 위해 그들이 가진 권한을 쓰고 있다"며 "나 또한 그들을 막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세션스 장관의 비판에 샤프 시장은 "멀쩡한 가족들을 찢어놓고, 우리 경제가 의존해마지않는 근로자들이 두려움 속에 살도록 만드는 실패한 이민 시스템으로 감히 미국민들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법무부는 전날 캘리포니아주의 이민법 조항 3가지에 대해 행정부를 대표해 소송을 냈다.

법무부가 문제삼은 조항은 캘리포니아 피난처 도시 법에 포함돼 있다. 이민 집행국(ICE)과 국토안보부 등 연방 이민당국이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자를 잡아들이기 위한 작전을 벌이게 되는 경우 지역경찰의 협조를 제한한다는 조항 등 3가지다.

지난해 10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미국에 체류중인 '증명서 미소지'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피난처 법안(SB54)에 서명함으로써 캘리포니아는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는 피난처 주가 됐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피난처 도시는 미국 내 여러 곳 존재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피난처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었다. 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됐다.

lchung@news1.kr



560M 달러 복권 당첨자가 결국 트러스트를 통해 당첨금을 수령한다

뉴햄프셔 파워볼 잭팟 당첨자 상금 수령기로

트러스트가 일시불로 264M 달러 수령
실명 공개 여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의문에 쌓여 있는 뉴햄프셔 파워볼 복권 당첨자의 변호사가 상금을 수령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복권 당첨금의 상당액은 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5억 6천만 달러의 파워볼 잭팟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은 트러스트를 구성해, 이 트러스트가 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택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7일, 트러스트가 공식적으로 복권 당첨금 수령을 요청했다.

'제인 도' 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당첨자의 변호인과 뉴햄프셔 복권 위원회는 콩코드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의 변호인은 단은 트러스트를 대신해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기로 했고 트러스트는 복권 상금을 받는 대로 25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이다.

여전히 복권 당첨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도는 자신의 이름이 익명으로 남게 하기 위해 뉴햄프셔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뉴햄프셔 법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의 이름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만약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트러스트를 구성해 트러스트가 당첨자 대신 당첨금을 수령하고 당첨자의 정보는 익명으로 남을 수 있다.

도의 경우에는 이미 당첨된 복권의 뒷면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트러스트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당첨자인 도의 실명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름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트러스트가 당첨금을 수령하면서 이름 공개에 대한 부분은 유보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도의 실명이 공개될지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도의 변호인에 따르면 복권 당첨금은 일시불로 수령할 예정이다. 파워볼 잭팟 당첨 금액은 5억 6천만 달러였지만, 세금을 제외하고 일시불로 수령하는 실제 금액은 2억 6천 4백만 달러이다.

jsi@bostonkorea.com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당신의 환한 미소가
바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 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드벌 패트릭 전 주지사 대선출마 시사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직접 관심 표명 주지사 임기 후 한동안 정치권과 거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지사로서의 임기를 마친 후 정치권과 확실하게 거리를 두어 왔던 드벌 패트릭 전 주지사가 2020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에 베인 캐피탈에 합류한 이후 패트릭 전 주지사는 정치권과는 멀어진 듯 보였다.

캔자스 시티의 공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패트릭 전 주지사는 2020년 대선에 대하여 “내 관심을 끌고 있다(It’s on my radar screen)” 라고 말했다. 패트릭 전 주지사는 “드벌 패트릭과 함께 하는 저녁: 미국에 다시 투자하기” 라는 행사를 위해 캔자스 시티를 방문 중이었다.

패트릭 전 주지사는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하여 총기 규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대선 발언에 가려졌다.

민주당 진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항해 나설 후

보가 누구일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백악관 참모였던 데이빗 악셀로드와 발레리 자렛이 패트릭 전 주지사의 대선 출마를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릭 전 주지사는 “(대선 출마는) 아주 큰 결정이다. 난 2020년까지 계속해서 생각해볼 것이고, 가족과 내 개인적인 관점도 고려해야 한

다” 라고 말했다. 지난 달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패트릭 전 주지사는 “내 생각에,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과연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옳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흑인 최초로 주지사에 당선된 패트릭 전 주지사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2번의 임기를 보냈다. 패트릭 전 주지사가 현재 몸 담고 있는 베인 캐피탈은 미트 롬니 전 주지사가 만든 투자 전문 회사다.

jsi@bostonkorea.com



드벌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베스 이스라엘을 비롯한 13개 병원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베스 이스라엘 비롯 13개 병원 대형 합병 추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병원 합병이 성사를 앞두고 있다.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13개 병원의 합병안에 대해 승인을 권고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번 병원 합병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보스톤의 베스 이스라엘 의료 센터, 밥티스트 병원, 캠프리지의 마운트 어번 병원, 뉴베리포트의 아나제이크 병원 등이다.

초대형 병원 합병이 추진되는 이유는 덩치를 키워 시장에서 경

쟁하기 위함이다.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탈, 브리검 앤 위먼스 호스피탈 등이 속해 있는 파트너스 헬스케어와 경쟁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13개 병원 합병에 대한 최종 승인은 15명으로 구성된 보건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이번 초대형 병원 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병원들이 대형화 되면서 환자들이 지출하는 의료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8
SeoulFoodBoston.com



서울 떡볶이

(구 비빔)



김밥, 라면, 떡볶이가 생각날때!

한국식 정통 분식전문점

한국 분식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 떡볶이, 돈까스, 치킨, 순대, 쫄면, 비빔밥등 50여가지의 분식전문점 메뉴)








617.787.5656

SEOUL TOPOKKI

166 Harvard Ave. Allston MA.02134

누가 트럼프 대통령을 떠났나, 백악관 이직자 목록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백악관 고위급 참모가 계속해서 백악관을 떠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게리 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NEC) 위원장은 6일 "여러 이유에서 백악관을 떠나게 됐다"고 밝혔지만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사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NBC는 콘 위원장을 비롯해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의 '조기 이직률'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도하며 자의로 혹은 타의로 직을 내려놓고 떠난 주요 고위 공직자들의 목록을 전했다.



샬리 에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

◇샬리 에이츠
2017년 1월30일 해고
전 법무장관 대행
샬리 에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은 소속 직원들에게 무슬림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일시 금지한 행정 명령에 대한 변호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움을 샀다.

당시 그는 "나의 책임은 법무부가 항상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일을 대변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는 것"이라며 "행정 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이러한 책임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마이클 플린
2017년 2월13일 사임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과 통화를 한 것과 관련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이 드러나 자 스스로 사임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세르게이 키슬랴크 전 대사와 대화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 관련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암시했지만 펜스 부통령에게 이를 거짓으로 보고했다.



프릿 바라라 전 뉴욕주 남부법원 연방검사

◇프릿 바라라
2017년 3월11일 해임
전 뉴욕주 남부법원 연방검사
프릿 바라라 전 뉴욕주 남부법원 연방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포함한 46명의 연방검사에게 요구한 사표제출을 거절했다가 해임당했다.

정부가 출범한 뒤 정무직 인사를 교체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대규모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 46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임

명된 연방검사였다.
바라라 전 연방검사는 해임 뒤 A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거절한 뒤 22시간 만에 해고됐다"고 밝혔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

◇제임스 코미
2017년 5월9일 해임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선거캠프와 러시아 정부 간의 공모 의혹,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하다 결국 해임됐다.

백악관은 당시 코미 전 국장이 법무부 최고 위직 관계자 2명의 권고에 따라 해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계 없이 언젠가 그를 해고했을 것"이라며 "러시아 문제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손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

◇손 스파이서
2017년 7월21일 사임
전 백악관 대변인
공화당 공보 전문가이자 '트럼프의 입'으로 통하던 손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은 앤서니 스킨라무치를 신임 공보국장에 임명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결국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파이서 전 대변인의 사의를 반려했지만 결국 스킨라무치를 공보국장으로 임명했고, 스파이서 전 대변인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라인스 프리버스
2017년 7월27일 사임
전 백악관 비서실장
라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스킨라무치 신임 공보국장과 백악관 권력 암투 끝에 눈밖에 나 결국 경질됐다.

프리버스 전 실장은 월가 출신인 스킨라무치의 국장 임명을 반대해왔다. 스킨라무치 국장은 자신의 재산 명세가 언론에 유출되자 유출자를 프리버스로 지적, 욕설까지 써가며 그를 비난했다.

이 사건으로 프리버스가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했다는 비판이 불거졌고 수차례 사임을 권고받아 결국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앤서니 스킨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

◇앤서니 스킨라무치
2017년 7월31일 해임
전 백악관 공보국장
스파이서 전 대변인과 프리버스 전 실장을 밀어낸 스킨라무치 ▶▶13면으로 계속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 12면에 이어서 는 취임 10일만에 전격 해임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새로운 실세로 떠올랐던 이 '과격' 월가 출신 공보국장은 백악관 내부 갈등을 일으키며 혼란을 일으키다 결국 축출당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

2017년 8월18일 해임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대안극우주의자이자 트럼프 오른팔로 불리던 배넌은 지난해 8월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시위로 촉발된 미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사태 직후 사임했다.

샬러츠빌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측근이던 배넌이 사임했다.



톰 프라이스 전 보건복지부 장관

◇톰 프라이스

2017년 9월29일 사임

전 보건복지부 장관

톰 프라이스 전 장관은 공무 출장 중 빈번한 전세기 사용으로 논란에 휩싸였다가 결국 사임했다. 그는 최소 26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전세기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수십만 달러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프라이스 전 장관이 오바마 케어 폐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

각해 그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디나 파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부보좌관

◇디나 파월

2018년 초 사임 예정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이방카 트럼프 부부의 조언자로 알려진 디나 파월 NSC 부보좌관의 사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 직후 알려졌다.

미 언론에 따르면 파월 부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될 백악관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부보좌관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오마로사 매니겔트 뉴먼 전 백악관 대외협력국장

◇오마로사 매니겔트 뉴먼

2018년 1월20일 사임

전 백악관 대외협력국장

오마로사 매니겔트 뉴먼 전 백악관 대외협력 국장은 지난해 12월12일 또다른 기회를 얻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뉴먼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유명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지지자 중 한 명이었다.

◇앤드류 매케이브

2018년 1월29일 사임

전 미연방수사국(FBI) 부국장

친(親) 민주당 성향인 앤드류 매케이브 부국장은 코미 전 FBI 국장과 함께 2016년 미 대선 당시 클린턴 후보의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 수사를 지휘, 그녀의 범죄 혐의를 벗



앤드루 매케이브 전 미연방수사국 부국장

겨졌었다.

또 트럼프 대선 캠프가 러시아 정부 측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초기 수사를 벌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캠프와 러시아 정부 측 사이의 유착설은 "가짜뉴스"라며 FBI의 편파적 수사를 주장해왔다.



롭 포터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

◇롭 포터

2018년 2월6일 사임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전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사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정폭력행사 폭로를 '단지 주장'이라고 깎아내리며 그를 두둔하기도 했다.



리드 코디시 전 백악관 기술혁신 보좌관

◇리드 코디시

2018년 2월16일 사임

전 백악관 기술혁신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퍼너와 인연이 깊은 리드 코디시 전 기술혁신 보좌관은 정부 시스템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발탁됐지만

"정부에서 1년 이상 일할 생각은 없다"며 결국 사임했다.



호프 히스 백악관 공보국장

◇호프 히스

2018년 2월28일 사임 의사 보도

백악관 공보국장

트럼프 일가와 가까운 '이너서클' 멤버 히스 공보국장은 20대의 젊은 나이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백악관 실세로 자리해왔다.

하지만 "공보국장으로서의 할 일을 최대한 다 이뤘다"며 수주 내로 사임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



게리 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NEC) 위원장

◇게리 콘

2018년 3월6일 사임 발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NEC) 위원장

콘 위원장은 "여러 이유에서 백악관을 떠나게 됐다"고 밝혔지만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사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씩의 일률 관세를 부과한다는 '폭탄 발언'을 한 뒤 콘 위원장은 이것이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그리고 미국과 세계와의 관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강하게 피력하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고 NYT와 폴리티코, 약시오스 등이 최근 보도했다.

seunghee@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BLISS IMAGE SALON & SPA

반 영구 확장 전문
(Now Offering Permanent Makeup)
licensed artist CHAE (MA & NY Licensed)

- 자연 눈썹(Microblading)
- 눈썹(Eyebrows)
- 아이라이너(Eye Liners)
- 입술(Lips)
- 탈모 문신(Hair Lined)
- 속눈썹 연장(Eyelash Extension)
- 피부(사마귀, 점 제거),
- 머리, 왁스

By Appointment Only

11A Corinth St. Roslindal MA 617.323.0023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목 - 일요일까지
픽업: 목-일, 새벽부터 오전9시까지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FAX: 978.796.5245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관세 부과 앞두고, 美 연준 일부 지역 철강값 급등세

수입품과의 경쟁 줄어든 탓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미국 전역에서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이 계속해서 빠빠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로 지역에서 임금 상승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밝혔다.

연준은 7일 12개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정보를 취합한 정기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속려된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일부 관할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며 건설, 정보기술, 제조 부문을 꼽았다.

연준이 평가한 미국의 노동 시장 상황은 지난 1월 중순 베이지북 보고서 발표 당시에 비해 약간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4개 관할지역에서 철강 가격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며 이는 부분적으로 수입품과의 경쟁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지난 1~2월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미약에서 완만한"(modest-to-moderate) 속도로 팽창했으며 물가상승도 완만했다. 앞선 보고서와 비슷한 평가다.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말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 정책결정자들은 지난해 12

월 회의에서 올해 3차례의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금리인상도 있었다.

최근 수주동안 많은 정책결정자들은 빠빠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촉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12개 관할지역에서 지난달 26일 이전의 자료를 취합해서 작성한 것이다. acenes@news1.kr



기아 신형 스포티지

기아 중고차 미국 시장서 인기만점

지난 1월 역대 최다 판매, 스포티지 견인차 역할

(애틀랜타=조선일보) 김연정 기자 = 기아자동차 중고차가 미국 시장서 고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2일 기아자동차 미주 판매법인(KMA)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시장에서 '서티파이드' 중고차(Certified Pre-Owned, CPO) 5830대를 판매해 역대 판매 신기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 '오토데이터'의 1월 CPO 판매 리포트는 기아자동차가 1년 동안 2.8%의 괄목할 만한 CPO 판매 증가율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스포티지 및 세도나가 괄목할 만한 판매 증가율 기록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 CPO 프로그램은 5년, 주행거리 5만마일 이내 기아차에 한해 적용되며 모든 차량은

기아 테크니션에 의해 총점 150점으로 평가되는 까다로운 자격 구비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KMA의 빌 페퍼 판매 운영 부사장은 "1월의 기록은 기아차가 세계 정상급 차량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면서 "150점 총점 검열은 고객들이 기아 CPO 차량을 구입시 자신감과 신뢰 속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번 성과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기아의 엄격한 CPO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차량은 최근 5년 내에 생산된 6만마일 이하 차량에만 적용되며 기아자동차 기술자들의 꼼꼼한 품질조사에서 1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일반 CPO차량들의 경우 10년/10만마일 워런티가 제공되며 12개월/1만2,000마일 플레티늄 커버리지도 제공한다.

kim7@atlantachosun.com

여성의 날, 맥도날드가 '로고를 뒤집었다'

'M' 뒤집어 'W'로, 여성의 업적 기리기 위해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가 로고를 뒤집었다.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Woman)의 첫 철자인 'W'로 만들기 위해서다.

7일 CNN에 따르면, 맥도날드의 최고 다양성 책임자(Chief Diversity Officer) 웬디 루이스는 "맥도날드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상징

을 뒤집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곳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특별한 업적들을 기리기 위해" 로고를 뒤집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뒤집힌 맥도날드의 로고는 캘리포니아의 한 지점에서만 볼 수 있다. 이 외에 다른 지점 100곳에서 직원들이 특별한 셔츠를 입고 여성의날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yjyj@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관심한 준비하는 성인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캐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bamortgageco.com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점심 뷔페 시작!
월-토: 11:30~2:30
일, 공휴일: 12:00~3:00

불판

바베큐&라운지

차가운 가을밤, 친구가 그리웁습니다.
친구와 한잔, 불판



영업 시간
주 7일 오픈. 금,토 : 밤 11시까지

소주, 칵테일 및 다양한 주류
가라오케 및 각종 연회시설 완비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주재원 비자(L-2)
- ✓ 특기자 비자(O-1, P-1)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취업이민
- ✓ 교수/연구직 이민
- ✓ 투자비자(E-2)
- ✓ 투자이민(EB-5)
- ✓ 가족초청이민
- ✓ 시민권 신청
- ✓ 주방재판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안희정 이어 정봉주도, 민주당 잇따른 미투 폭로에 당혹감

최대한 몸 낮추고 발언 · 행동 조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손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까지 '미투 폭로'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다.

공천에서 성범죄 검증을 강화하고 권력형 성폭력 처리 기준을 세우는 등 진화에 부심하고 있지만 과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안전지사 제명 절차를 마무리지은 데 이어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또 같은 날 최고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에 이어 충남도당위원장인 박완주 최고위원

까지 거듭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민주당의 발빠른 대응은 안전지사 관련 사태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당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추가로 폭로됐다.

정 전 의원은 당초 7일 오전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출마 선언을 무기한 연기했다. 정 전 의원은 해당 폭로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하며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유력 인사들의 미투 폭로가 잇따라 나오면서 당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위기감이 함께 감돌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하나만 더 나오면 끝"이라며 "매일 뉴스를 보는 게 불안하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 몸을 낮추며 발언과 행동을 모두 조심하는 모양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유구무언"이라며 "지금은 최대한 말을 자제하고 자세를 낮추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여성 보좌진들을 불러 '특별한 문제가 없느냐'며 상담 시간을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문제가 단순히 민주당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만큼 미투 폭로가 이어지면 결국 국회 전반이 자성하는 분위기를 가져야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 이날 오전에는 야당 의원들의 실명이 포함된 소문이 국회 의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회관을 떠돌기도 했다.

한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보좌진은 "여야 구별 없이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알음알음 다 아는 분위기"라며 "저쪽 당(민주당) 외에도 제2, 3의 폭로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보좌진은 "이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참 답답하다"며 "의원이나 보좌관이나 찢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 게 먼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bilitykl@news1.kr

안희정, 기자회견 돌연 취소, 또 다른 성폭행 의혹 부담?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8일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안전지사는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째인 이날 오후 3시 충남도청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안전지사 측은 전날(7일) 기자들에게 '안희정 전지사 입장발표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전지사의 기자회견을 공지했다.

하지만 안전지사 측은 이날 오후

또 다른 입장문을 통해 기자회견 취소 사실을 알렸다.

안전지사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드리고자 했다"면서도 "모든 분들이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거듭 사죄드린다"고 재차 사과한 후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주시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안전지사가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한 데는 전날(7일) 오후 제기된 또 다른 성폭행 의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전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종합편성채널 JTBC는 전날 뉴스룸 보도를 통해 안전지사의 성폭행 추가 피해자 역시 변호인단을 꾸려 안전지사를 고소할 예정인 것

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JTBC에 따르면 이 여성은 안전지사가 설립한 연구소의 직원으로 김지은씨와 마찬가지로 1년이 넘게 성폭행, 성추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2015년에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이 있었고 2016년에는 성폭행 시도가 한 차례 있었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JTBC는 이 여성이 안전지사가 유력 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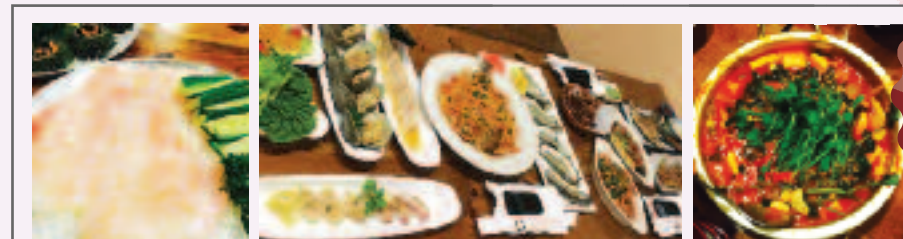
령 선거 후보로 주목받고 있던 지난해 1월에도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silverpaper@news1.kr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새봄 맞이는 오빠 스시와 함께!



사시미만 생각날때: 우럭, 광어, 도다리 각 \$60 (스끼다시 3종류 제공) 회덮밥, 한치회무침, 생선뼈 매운탕도 강추!



더 넓은 공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한국식 회정식: 4인이상 \$40/1인, 3인 각 \$50, 2인 각 \$60

사시미와 매운탕, 스끼다시, 생굴, 성게알, 대합, 생선찜, 아구간, 참치초밥, 불마끼, 참치타다끼, 방머살구이, 새우튀김, 열빙어튀김, 오징어튀김, 스킨버터구이, 해물라면, 아이스크림

한국식 회정식을 즐기세요!

yelp가 선정한 BOSTON BEST SUSHI!

OPPA SUSHI

617.202.3808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MAR. 9 - MAR. 15, 2018

YAKITORI CHEERS AND BEERS TO THIS PERFECT CHICKEN ON A STICK. 한개씩 쓱~ 쓱~ 빼먹는 재미가 있는 닭꼬치를 H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SPRING BRINGS DAYLIGHT SAVINGS Please turn your clocks forward 1 hour on March 11th (Sunday) at 2am. 3월 11일(일요일) 새벽 2시부터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시계를 1시간 앞으로 당겨놓으세요.

Share it @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hmartusa
 Follow us @hmartusa

Kimchi EVERYDAY

Small Chestnut 토종밤 \$3.99	Korean Jeju Radish 한국산 제주 성산 월동무 \$0.99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49	Kent Mango 켄트 망고 \$7.99	Roasted Peanut 땅콩 1lb/pkg \$1.69
RAW NATURE Tofu 자연담은 두부 All Varieties - 14oz./pkg \$0.99	Israeli Clementine 이스라엘 클레멘타인 5 lbs./box \$7.99	Packed Garlic 팩마늘 5cmt/pkg 2\$3	Korean Gold Kiwi 한국산 골든 키위 17.6oz./pkg \$2.99	Winter Melon 윈터 멜론 \$0.9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eef Tenderloin (Whole Piece) 소안심 \$8.99	Ox Tail 생소꼬리 \$10.99
Pork Spare Ribs for BBQ 바베크용 돼지갈비 \$3.49	Skin-on Pork Chunk Sheet Belly 껍질있는 주육용 삼겹살 \$5.99
Chicken Wings 닭날개 \$2.49	Marinated Boneless Chicken Thigh 양념 닭 사태살 \$2.99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KYO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대 18 lbs. \$10.99	KWANG CHUN NONG HYUP Green Tea Seasoned Layer 2.7oz. x 100ea. \$9.99
NONGSHIM Noshim Seollam Shin Ramyun Noodle Soup 4.2oz. x 160ea./box \$9.99	Chungjungcheong Gochujang 6.8 oz. \$12.99

제주 활광어 & 완도 전복 특판전

March 9 - 11, 2018 at Hmart Burlington store

JLU FISH CULTURE FISHERIES CO-OP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Mackerel 고등어 300-500's \$1.99	Cooked Whole Clams 백합조개 17-22pc/1 lb. - pkg. \$2.99
TONGTOMBAY Seasoned Dried Fish Meat 통통배 어포지 \$1.99	Cooked Topshell Meat 소라살 \$9.99
Mackerel Pike 꽁치 00-00's \$1.99	Cod Fillet 대구 전갈 \$6.99

RAW NATURE Brown Rice 자연담은 현미 15 lbs. \$9.99	YAMASA Soy Sauce 야마사 간장 24oz. \$2.99	HAO FEUM Citron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7 lb. \$4.99	NATURAL GARDEN Ginger Tea 네츄럴가든 생강차 Original Honey 6.4-12.8oz. 2\$5	DONG WON Canned Bai Teo Shell 동원 굴말이 통조림 14.1oz. \$5.99
HORREL FOODS Spam 스팸 All Varieties 13oz. 2\$5	CJ Ebiwo Best Pork Mandu CJ 배우고 왕꼬차 소고기/돼지 만두 \$7.99	SHIRAKO Japanese Style Sankyo Udon Noodles 시라코구 사누끼야 우동 \$3.99	ORION Digma's Snack 오리온 디마즈 스낵 Original/Chili - 5.0oz. \$2.99	BINGGRAC Samanco Ice Cream 빙그레 봄이 새만코 아이스크림 6.11oz. x 4ea. \$3.99
SAMYOOK Black Bean Calcium Soy Milk 삼육 검은콩 칼슘 두유 120ml. x 24ea./box \$14.99	KWANGDONG Vita 500 Vitamin C Drink 광동 비타 500 드링크 2.7oz. x 100ea./box \$4.99	Doahay/ Kukunipack (Filter Bag for Soup) 다시액/국물백 Large/Medium/Small \$1	Quilting Shoes 꽃무늬 요술 버선 Pink/Black/White - ea. \$1.49	Ribbon Winter Slipper 리본 겨울 슬리퍼 Pink/Tan/White - ea. \$5.9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s. Best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prices exclude taxes and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43 W. Middle Street,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2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文대통령, 현재 실얼음판 걷는 상황...성급한 낙관 안 돼

정상회담서 많은 합의 할 수 있다고 생각안 해

(서울=뉴스1) 김수완, 성도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7일 "현재 실얼음판을 걷는 상황, 느끼이고 성급한 낙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이처럼 언급했다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북 대화에 진전이 있어야 정상회담의 공간이 넓어진다"며 "자유로운 상태도 아니다,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의 틀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

은 전했다.

그러면서도 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간 대화, 비핵화 약속, 미북 대화 등 이런 부분은 남북만의 노력으로 안 되고 결국 남한, 북한, 미국 3국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가 반영돼야 하는데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 이유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 군사연합훈련은 연기될 수 없다는 것이 설명돼야 하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단을 들어봐야 하기에 특사단이 가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bilityk1@news1.kr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저녁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박2일간의 북한 평양 방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서울 국정원장

정의용·서훈, 김정은 메시지 들고 오늘 방미, 백악관 전달

미국서 안보수장, 관련부처 장관 등과 만남 北의 북미대화 의지·비핵화 관련 발언 전달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으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간 방북했다가 귀환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석 특사)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8일 방북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정 실장과 서 원장 등은 이날(8일) 오전 한국을 출발해 미국 워싱턴에서 10일(현지시간) 오전 귀환하는 2박4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미국에서 총 세 차례의 만남을 갖는다. 첫 번째는 미국의 안보·정보 관련 수장 두명과의 2+2회동이다.

미국측 인사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아울러 대북문제를 담당하는 부처 장관들 3명과 2+3회동이 예정돼 있다. 두 차례 만남은 모두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이 될 가능성이 높기로 전해졌다.

세 번째 만남은 백악관에서 이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미국측에 북한의 북미대화 의지를 전하는 한편, 방북 당시 청취한 북한의 비핵화 관련 발언을 세밀히 전달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지난 6일 언론발표를 통해 '4월말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합의결과를 밝힌 바 있으며, 북미 대화와 관련해선 "미국에 전달할 북

한 입장을 저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갖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미국에 전달할 북한 메시지를 둘러싼 여러 설들에 대해선 사실상 모두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전달할 북측 메시지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영변핵 시설 가동 중단 용의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폐기와 억류 미국인 석방, 대북 정상국가 대우 희망 등이 포함돼 있다는 데에 "모두 추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내용(메시지)을 아는 사람이 (대북특별사절단) 5분과 문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 실장은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6일, 곧바로 맥매스터 보좌관과 통화해 방북결과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cho11757@news1.kr

SCMP 北 김정은, 동생 김여정 워싱턴에도 보낼듯

김여정은 북한의 가장 강력한 무기 김정은, 트럼프에 매우 특별한 메시지 전달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미대화 관련 특사로 자신의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을 미국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SCMP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 허버드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여러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인데, 그 중 하나가 이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 이 메시지는 전례 없고 매우 특별한 내용"이라며 "미국이 이 메시지를 공개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이 북미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북한 측의 조건을

전달할 것"이라며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을 한국에 보냈던 것처럼, 이번엔 워싱턴으로 보낼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김여정은 현재 북한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으로 지난 5일 방북 후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석 특사)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발한다.

2박4일간의 방미 일정 동안 맥매스터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미국 측에 북한의 북미대화 의지를 전하는 한편, 방북 당시 청취한 북한의 비핵화 관련 발언을 세밀히 전달할 계획이다.

yjyj@news1.kr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Featured Business Listing



Fish Market

보스톤 남쪽 변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000 이상, To-go 메뉴 Extra 수입.
소비자 리뷰가 매우 좋은 가게, 넓은 주차공간

Asking **\$180,000**



코인세탁소 매매

보스톤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코인세탁소 매매
년 매상 \$350,000+
2,500 Sq. Ft.
안정된 매상, 고객층 및 여유로운 주차장

Asking **\$450,000**

NEW LISTINGS

Commercial



건물 매매

보스톤 남쪽,
세탁소 입점된 단독건물
세탁소와 함께 구입 가능

Asking **\$385,000**

Residential



앤도버 콘도 매매

럭셔리 타운하우스
3852 sqft, Bed:3 Bath:4,5
필립스아카데미 5분거리

Asking **\$995,000**

Commercial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폴플랜트 매매
년 매상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인근에 위치,
년 매상 \$200,000 +
안정적인 고객층과 새로운 기계들

Asking **\$230,000**

Business



살롱 & 스파

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

Business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

Business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부 Full Plant, 크기 2,000 Sq. Ft.
보스톤에서 30분 거리, 25년간 영업중.
Shopping Center 안에 위치,
매상 \$250,000

Asking **\$23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연매상 \$200,000 이상,
확보된 많은 고객과 안정된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Business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세탁소 매매
좋은 동네, 안정된 고객층
800 Sq. Ft. 년 매상 \$180,000

Asking **\$130,000**

Business



세탁소

Brookline 좋은 위치
연매상 \$220,000 이상, 보장된 수입
1년된 Hydro Carbon 기계

Asking **\$23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남쪽에 위치한 Drop-off 세탁소,
좋은 동네 변화한 길에 위치,
연매상 \$100,000 이상.

Asking **\$50,000**

Business



한국식당

보스톤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Yousuf Masud
978.995.1049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Condominium
120 Parker St. - Unit 26
Acton, MA
Asking price: \$189,900
Listing Agent: Laura Rakauskas



Just listed: Town House/Condo
109 Crystal Brook Way - Unit B,
Marlborough, MA
Asking price: \$284,9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Rental
16 Abbey Road - Unit 17
Sherborn, MA
Asking: \$3,750/mo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Ken Tlagae
617.959.5500



Ayla Yildi
781.249.4872



Just listed: Single family
905C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Asking price: \$615,000
Listing Agent: Maria Koral



Just listed: Rental
1731 Beacon St. Unit 301
Brookline, MA
Asking price: \$2,1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Rental
69 Qunit Ave. - Unit 26
Boston, MA
Asking price: \$2,1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Town House Rental
53 South Walnut St. - Unit 2
Quincy, MA
Asking price: \$2,3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Single Family
15 Meadow St.,
Dedham, MA
Asking price: \$599,9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3 Larch Rd.
Acton, MA
Asking price: \$535,0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 LaPorte
978.424.3045



Teresa Vitelli
781.619.0473



Johanna Parlon
978.501.4753



M. Keith Peifer
304.963.292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압구정YK성형외과'

피곤하고 졸린 인상을 주는 안검하수 비절개 눈매교정으로 자연스럽게 또렷한 눈매 완성

이번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평상시 본인의 인상이 졸려 보이거나 피곤한 인상을 갖고 있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비절개 눈매교정에 대해 휴람 네트워크 압구정YK성형외과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하고자 한다.

졸리거나 피곤한 인상을 갖고 있다면 우선 안검하수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안검하수란 눈 부위의 근육의 힘이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후천적으로 근육의 늘어짐, 노화, 손상 등으로 인해 눈이 크게 떠지지 않는 증상이다.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예뻐지고 싶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눈의 기능과 형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눈 성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눈을 또렷하게 뜨기 위해서는 눈에 힘을 주거나 이마를 잔뜩 찌푸려 눈을 떠야 하므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인상에도 좋지 않으며, 이로 인해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답답해 보이는 인상, 늘 힘겹고 졸려 보이는 이미지로 인해 학교나 직장생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눈매교정이라는 수술 방법이 존재하는데 이는 근육의 힘을 조절하여 눈을 뜨게 하고, 외모, 기능적 능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수술방법에 따라 절개 눈매교정과 비절개 눈매교정 방법이 있다.

절개 눈매교정은 심한 안검하수에도 적용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교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절개법에 비해 회복기간이 다소 길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비절개 눈매교정의 경우 흉이 없고, 조직손상이 적어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어 선호되고 있다.

하지만 눈의 상태에 따라서 절개 눈매교정,



두 수술법은 비슷하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양한 근육과 피부로 연결하여 비절개 눈매교정은 눈물 또는 눈을 위해 피부와 근육, 안검판을 일체 연결해 줍니다.

부분절개 눈매교정, 비절개 눈매교정 등에 수술 방법이 있으며, 이마로 눈을 뜨는 경우는 내시경 이마거상이 필요 할 수도 있으므로 수술 전 경험이 많은 숙련된 전문의와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비절개 눈매교정이란?

비절개 눈매교정이란 눈을 뜨게 하는 근육(상안검 거근과 물러근)을 결막쪽에서 접근하여 당겨주어 눈 뜨는 힘이 잘 전달 되도록 하여 눈동자가 가려지거나 졸려 보이는 눈을 정상적으로 뜰 수 있도록 하는 수술 방법이다. 기존의 절개 눈매교정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수술 후 흉터와 부기가 거의 없어 빠른 회복이 특징이다.

◎ 비절개 눈매교정의 수술대상

1. 졸려 보이는 눈일 경우
2. 눈을 뜰 때 이마주름이 생기는 경우
3. 눈을 편안하게 뜬 상태에서도 눈꺼풀이 눈

동자를 가리고 있는 경우

4. 양쪽 눈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 비절개 눈매교정 장점

1.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붓기와 흉터가 거의 없어 회복기간이 짧다.
2. 쌍꺼풀수술 없이 눈매교정이 가능하다.
3. 눈 재수술 및 짙은 교정이 가능하다.
4. 이마 주름을 예방할 수 있다.
5. 일반 매몰과 달리 잘 풀리지 않습니다.

◎ 일반 매몰 비절개 눈매교정의 차이점

일반 매몰보다 비절개 눈매교정이 잘 풀리지 않고 또렷한 눈매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비절개 눈매교정 수술 후의 주의사항

비절개 눈매교정의 수술은 약 30분 내외로 이루어진다.

- 수술 후 첫 이틀 동안은 부기나 멍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점차 빠진다. 수술 당일 앞서 주무시거나 잘 때는 고개를 숙이거나 엎드리는 행동은 금하고 폭신한 베개를 2~3개 정도 받쳐서 주무시는 게 부기나 통증을 가라앉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 수술 부위를 직접 비비거나 만지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 수술 후 2~3일까지는 부기와 멍이 생길 수 있고 그 후 약2주~4주간에 걸쳐 서서히 빠지게 되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 수술 후 마사지나 경락은 1~2달 후에 받을 수 있다.

- 음주와 흡연은 상처를 더디게 아물게 하므로 삼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4주 후부터 가능하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Jay Lee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 개발 투자 상담 환영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금주의 LISTINGS



Dedham에 위치. 새로 renovate된 Single Family House (7 bedroom/4 bathroom, finished basement)
방이 많은 집이 필요하시분에 적격 **ASKING \$74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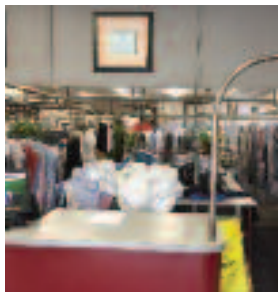
LISTINGS



Brockton에 있는 30년된 "Meat Market" Lottery, Cigarettes, Grocery
ASKING \$95,000



Drop shop in Newton Location! Location!
ASKING \$49,000



보스턴 남부지역 성황리 영업중 풀 풀러트 세탁소
ASKING \$160,000



로드 아일랜드 성업중인 스시 식당 주인 리타이어
ASKING \$280,000



Single Family in Quincy Guest House에 적격 4 B/R, 2 1/2 Bath
ASKING \$589,000 Rent도 가능: 월 \$2,800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TEL. 617.467.5218
FAX. 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F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야치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야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즈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N)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협회	781-424-5269
F대한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임업인협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향 향후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려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동문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즈장로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즈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617-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스프링필드교회협의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레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엘리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웨스트프린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판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미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뱅크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롱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짐승식주문	781-648-0584
한이음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광방	617-437-0378
김택은 Realtor	617-782-9330
백영주미용실	978-239-0141
송기백미용실	781-510-9924
송현미미용실	617-835-7664
손옥원미용실	508-737-8636
신현철미용실	617-947-6293
엘비미용실(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미용실	617-275-3109
이경혜미용실	800-867-9000
이정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미용실(EXT.125)	603-770-3491
정윤숙미용실	617-236-8600
프루덴셜(이효숙)미용실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미용실	603-845-2138
Premier Realty Group	617-642-3156

돌상 대어/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켄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드(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해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캠브리지덴탈	617-492-8210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퀸지스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온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희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ACTON 살롱치	978-263-4592

PR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포스페이

지난 한해동안 성원해 주신
한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 무술년 한해에도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 절약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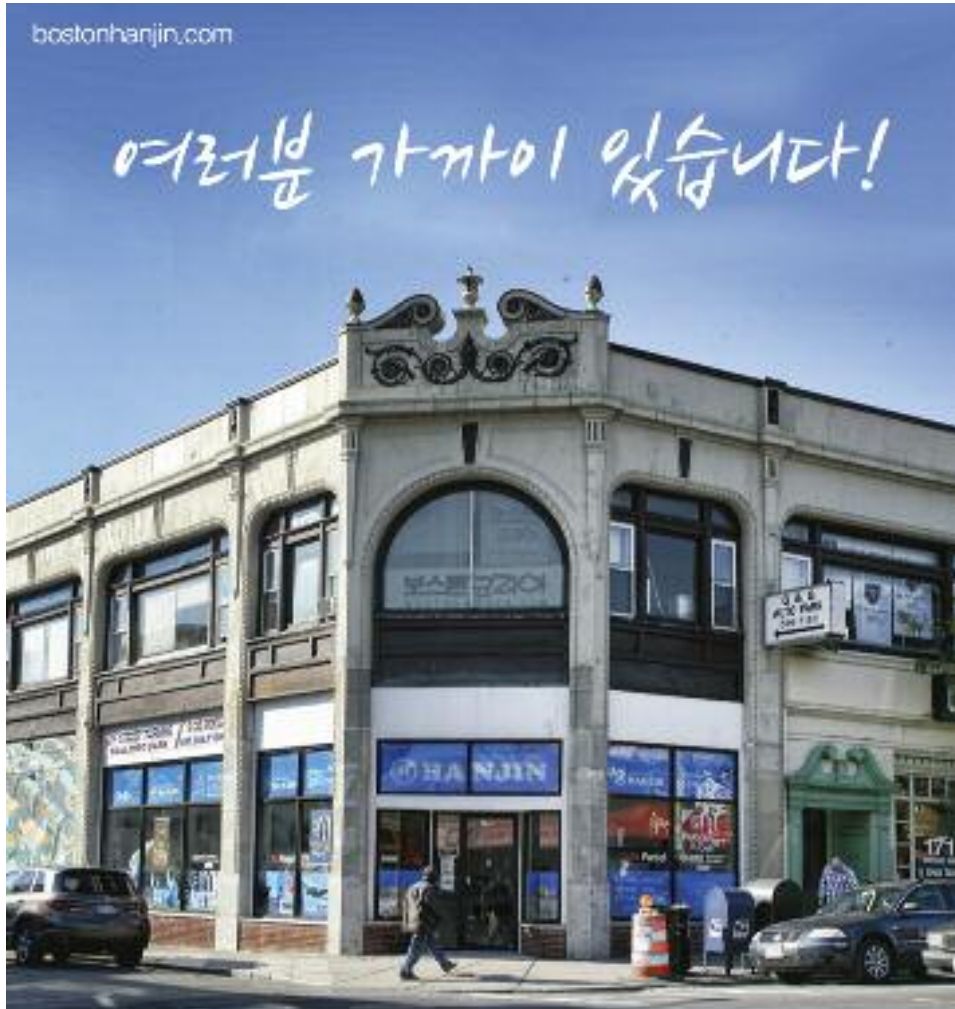
- 본촌: 20% 절약
- 돼지공: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s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Agent/상담원 모집

TEL_617.466.2212 TOLL FREE_888.604.2190

158 Everett Ave. Unit 3 Chelsea, MA 02150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ne's Doubly Parish of Korean Church

성목요일 (3/29)
8pm-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3/30)
3pm-십자가의 길
8pm-수난예절

성토요일 (3/31)
9pm-부활 성야미사

부활절 (4/1)
3pm-부활대축일 낮미사 및 세례성사

45 Ash St. Newton, MA 02456
617-558-7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장비 설치

상담문의 781.492.7662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당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당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IT'S TIME TO TRAVEL

4989 부동산 매매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n1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人

制 (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Teach the older men to be temperate, worthy of respect, self-controlled, and sound in faith, in love and in endurance. Likewise, teach the older women to be reverent in the way they live, not to be slanderers or addicted to much wine, but to teach what is good. - 디도서 2:2절,3절.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인 제재 압박을 견디지 못한 북한의 탈출구로 문재인 정권을 이용하는 기획이다” 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7일) 청와대 여야대표회담을 하면서 줄곧 안타깝게 느낀 것은 김정은의 핵 인질에 잡혀 있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선택이 김정은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 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은 막대한 달러를 북에 제공하고 우리측의 요구에 북이 응한 전략적인 회담이었다” 고 운을 폈다.

홍 대표는 “북한이 기획한 국제제재 탈피와 6.13 지방선거용 남북정상회담이 북핵(北核) 완성 시간 벌기용으로 밝혀진다면 문 정권은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한 정권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대표는 “북핵동결과 탄도미사일 개발중단으로 협상이 마무리 된다면 그것으로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핵(核) 질곡 속에서 영원히 신음하게 될 것” 이라며 “핵 폐기로 가는 핵동결이라는 위장 평화협상도 절대 불용해야 한다” 고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우리는 (북한)핵을 용인할 수 없다” 며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 고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특사단 방북(訪北)결과를 설명하며 “(남북 및 미북 대화)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 국제적 합의 속에서 완화할지언정, 임의적 완화는 있을 수 없다” 고

이번 남북합의와 관련 비핵화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지난 25년간처럼 또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 없이 제재완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은 적절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면서도 “헛된 희망일지도 모른다” 는 전제를 붙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만들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면 대화는 결코 오래 못 갈 것” 이라며 미 국가정보국(DNI), 국방정보국(DIA) 수장들도 상원 청문회에서 모두 이번 합의에 경계심을 표시했었다.

북한의 전력을 볼 때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

워싱턴을 방문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의 이 원칙을 미국에 확실하게 야 한다. 한미 양국의 신뢰속에 대 북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으려면,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해체를 들고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미가 보조를 같이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며 북한과 대화할 때다. 가짜와 진짜는 자연스럽게 가려내며.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에 의하면 “북한 최하층 가계의 한달 생활비가 실효 환율로 10~20 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거의 생물로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드는 돈. 중간층은 50~100 달러, 장(場)마당 부자와 같은 상류층은 중간층의 두배 이상 돈을 쓸 것으로 본다. 당 중간 간부, 군 간부들은

장사도 안하면서 중·상류층 생활을 한다. 노동당이 이들에게 주는 월급은 놀랍게도 1달러가 안된다. 군과 당간부들 생활을 유지해주는 것은 모두 “뇌물” 이다.

합법적 뇌물과 불법적 뇌물이 있다. 이 합법적 뇌물이 년간 3억~5억 달러에 이른다. 5~6만명에 이르는 북한 해외 근로자는 모두 큰 뇌물을 바치고 외국으로 나온 사람들.

이들이 북한 가족에게 보내는 월 수백 달러 중 일부도 당 간부들에게 흘러간다.

더 큰 것은 장마당을 원천으로 하는 불법적 뇌물. 배급경제가 붕괴된 북한에서 장마당 경제는 전체 북한 주민수입의 90%에 이른다.

한 달에 1 달러도 안되는 월급을 받는 가장은 당에 찍히지 않기 위해 가끔 나오는 배급을 놓칠까봐 기업소에 나가고 엄마와 자식이 장마당에서 생활비를 번다.

UN의 새 대북제재 2321호는 북한의 바로 이 뇌물 경제, 생존루트에 심각한 타격을 가한다. 중국과 무역이 막히면 리베이트가 끊기고 무역하던 군(軍) 기업소들의 달러가 마른다.

무역이 줄면 장마당 규모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상납되는 뇌물 액수도 줄어든다. 빛내 뇌물바치고 해외로 나갔던 근로자들이 강제 귀국당하면 막대한 상납액이 끊긴다. 그 근로자들은 불안, 불만 세력화한다.

북한 경제 전문가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현재의 북한 상황을 ‘태풍 전야의 고요’ 라고 표현한다. 비바람은 이미 시작됐고 북한 주민 모두가 곧 태풍이 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올 해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는 90%까지 격감한다.

당 간부들이 UN제재로 자신들의 생활이 막막해 질 수 있다는 현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령과 핵(核)을 지켜야한다는 생각과 1달러 월급으로 배급도 없이 살 수 밖에 없는 마음이 불안을 키운다.

김정은은 평화공세 카드를 빼들고 태풍권에서 벗어 내려는 몸부림이다.

핵 포기는 김정은은 왕조의 몰락으로 믿고 있다. 신앙수준이다.

미국의 공격을 받지 않고 앞으로 2년을 보내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미북회담” 을 유지해야 100개의 핵 탄두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략의 함의를 얻어내야 할텐데...

“온 몸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절제 없이는 온 몸으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절제가 신앙 생활의 시작입니다.”

- 보스톤한인교회 이영길(李永吉) 목사님 설교 “내 몸을 쳐 복종케함은” 중에서.

制: 禁也금야 - 금할 제. 풀어보면 ① 卩: 左引之 - 빼칠 별. ② 二: 두 이(예수님을 지칭). ③ 巾: 수건 건. ④ 刀 = 刀: 兵刀병도 - 칼도. 해석하면 ①하나님의 숨결(卩)이 ②二巾: 하늘의 두번 째 수건(二巾): 하늘의 3위 일체 중 2번째인 예수님의 역할 곧 물로 씻긴 몸을 수건(巾)으로 닦되 옆에 칼(刀)이 지켜보아 불합격이나를 판결하는 것이 制. 한마디로 하나님 삼위(三位)께서 승인해 주셔야 하는 제도(制度)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가려내는 제도.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면서 이 制를 벗어나려는 지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자기 방어에 강하니까.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9.99~~

\$34.99

*전상품 무약정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KBS MBC SBS

Clean Site KBS MBC SBS SBS Plus tvN XTM STORY ON OnStyle Mnet O'live OCN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지금 만나러 갑니다', 소지섭X손예진 손잡고 돌아온 '첫사랑 멜로'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소지섭과 손예진이 각자의 '인생 멜로'를 경신할 수 있을까? 일본 영화 리메이크작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한국적인 감성과 정서를 제대로 표현하면서도 원작의 감동을 잘 살린 스토리로 화이트데이 관객 공략에 나선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편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멜로 영화다. 이치카와 다쿠지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일본에서 2004년 동명의 영화로 제작돼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일본 영화에서는 다케우치 유코와 나카무라 시도가 남녀 주인공을 맡았다.

한국판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는 소지섭이 아내 수아를 먼저 떠나 보낸 후 아들과 딸이 남겨진 우진 역을 맡았다. 또 손예진이 세상을 떠난 1년 후 기억을 잃은 채 돌아온 수아 역을 맡았다. 두 배우는 데뷔 후 처음으로 멜로 호흡을 맞췄다.

손예진은 멜로 영화로서 이 작품이 자신의 히트작 '클래식' 내 머릿속



의 지우개' 등을 잇는 작품이라는 평가에 "나도 비 맞고 뛰고 공중전화에서 전화하고 기차에서 내리고 하는 장면이 '클래식'도 생각나고 기분이 되게 묘했다"고 말했다.

또 소지섭과의 멜로 연기에 대해 "설 던 적이 많았다. 손잡는 그에서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나중에 수아가 떠나기 전에 발코니에서 비가 올 때 서로 뽀뽀하고 안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도 너무 좋았다"고 회상했다. 소지섭 역시 "유독 손잡는 장면이 많았다. 그 장면들이

설렸다. 기억 잃은 채 우진 앞에 나타난 상태라 아무 것도 모른다. 그래서 매번 설렸다"고 화답했다.

더불어 소지섭은 "배우가 우는 게 아니고 관객들이 슬퍼해줬으면 좋다고 생각했다. 현장에서 눈물이 많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하면서 촬영했다"며 자신이 선보인 연기의 포인트를 설명했다.

한편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오는 14일 개봉한다.

eujenej@news1.kr



BTS (방탄소년단) 'DNA' Official MV 조회수 301,000,814회

방탄소년단 'DNA' MV, 3억뷰 돌파 K팝 사상 최단 기간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의 'DNA' 뮤직비디오가 케이팝 그룹 사상 최단 기간 3억뷰를 돌파했다.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承 'Her'의 타이틀 곡 'DNA' 뮤직비디오는 7일 오전 11시 19분경 유튜브 조회수 3억건을 넘었다. 이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6시 공개 이후 5개월여 만에 기록이다.

'DNA' 뮤직비디오는 가상현실과 우주 공간을 넘나드는 듯한 장면 변환을 통해 '우리 둘은 태초부터 운명적으로 얽혀 있으며 DNA부터 하나였다'는 가사를 시각적으로 표현

했다. 공개 후 한국 가수 최단 기간 유튜브 조회수 1000만, 2000만뷰 돌파 기록과 케이팝 그룹 최단 기간 1, 2억뷰를 돌파하는 등 전 세계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이외에도 '불타오르네(FIRE)', '쩨어', '피 땀 눈물', '낫 투데이(Not Today)' 등 총 4편의 2억뷰 달성 뮤직비디오와 '상남자', 'Save ME', '봄날', 'Danger', 'I NEED U', '호르몬 전쟁', 'MIC Drop' 리믹스 등 총 7편의 1억뷰 돌파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hmh1@news1.kr

3월 11일 - 3월 17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p> <p>● 운수: 늦춰서 좋을 일이 있고 미루고 늦추다가는 낭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멈추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 금전: 외모만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일과 관련해 잘못 판단하면 손해로 연결됩니다. ● 애정: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빨리 치료되지 않고 흉터로 남아 오랜 시간 영향을 주는 상처도 있는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3, 17일 길일, 12, 15일 주의.</p>	<p>소띠 한 번 더 생각해야</p> <p>● 운수: 그 어떤 일도 지나고 나면 허무한 꿈에 불과하니 당장 생긴 상황만 보고 너무 속을 끓이지 마세요. 귀한 내 몸만 생각합니다. ● 금전: 돈이 빠져나가는 운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하세요. ● 애정: 나중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되돌릴 수만 있으면 되돌리고 싶은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85, 73, 61, 49, 37년생은 14, 17일 길일, 13, 16일 주의.</p>	<p>범띠 생기가 도는</p> <p>● 운수: 생기가 도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프던 사람은 점차 몸이 나아집니다. ● 금전: 평소 때보다 머리가 맑아지니 판단력도 상승합니다. 금전관리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행복도 커집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2, 15일 길일, 14, 17일 주의.</p>
<p>토끼띠 더 나은 미래를 위한</p> <p>● 운수: 갈수록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구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금전: 막연한 기대감으로 기다리지 말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몇 %인지 수치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보는 것이 편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표정관리를 잘하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13, 16일 길일, 15, 17일 주의.</p>	<p>용띠 묵묵히 의연하게</p> <p>● 운수: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 리를 간다는 말처럼 지금 내가 배플면 그 덕을 여러 사람이 보게 됩니다. ● 금전: 묵묵히 의연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해온 사람에게 보상은 받는 것 같은 일이 생깁니다. 금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 애정: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다는 생각이 드는 상대가 드디어 내 인생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2, 17일 길일, 11, 16일 주의.</p>	<p>뱀띠 귀한 정보를 얻는</p> <p>● 운수: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말이 있듯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마음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처음에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힘들겠지만 인내심을 가지세요. 대화를 나누다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5, 16일 길일, 11, 17일 주의.</p>
<p>말띠 발등에 불이</p> <p>● 운수: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을 더 이상은 미루기가 힘들 것입니다. ● 금전: 피해를 줄이려면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 밖에 없습니다. 미리 철저히 대비한 사람과 손 놓고 있다가 당하는 사람과 다가오는 결과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 애정: 소개받는 것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생각했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1, 14일 길일, 12, 15일 주의.</p>	<p>양띠 가속도가 붙는</p> <p>● 운수: 간절하게 원하면 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점차적으로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 금전: 그동안 해오던 일에 가속도가 붙는 운세입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매력에 내 눈에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랑에 빠져들어 갑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2, 14일 길일, 11, 16일 주의.</p>	<p>원숭이띠 꼼꼼하게 체크하고</p> <p>● 운수: 다소 귀찮은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 금전: 지금까지가 잘 되지 않아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현금을 준비해주세요. ● 애정: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큰 용기를 내어 줘야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3, 17일 길일, 11, 14일 주의.</p>
<p>닭띠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p> <p>● 운수: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큰일이든 항상 설마하면서 방심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 금전: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 누군가 한 사람이 저주어야 끝이 나는 싸움을 서로가 고집을 세우니 쉽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3, 14일 길일, 11, 12일 주의.</p>	<p>개띠 믿어주는 만큼 좋은 결과가</p> <p>● 운수: 내려놓기 전에는 큰 일이 날 것 같아도 막상 손에서 내려놓으면 아무 일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 금전: 돈벌이로 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다 보면 돈이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 애정: 잘 할 것이라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주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2, 15일 길일, 13, 16일 주의.</p>	<p>돼지띠 더 멀리 뿔 준비를</p> <p>● 운수: 개구리는 뛰기 전에 움츠러야 더 멀리 뿔니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더 멀리 뿔 준비를 하세요. ● 금전: 당장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선택하세요.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이득이 될 것입니다. ● 애정: 할 일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유익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2, 16일 길일, 11, 14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 백베이에 위치한 빨래방 (버클리 음대 근처) 카운터 보시며 일하실분 연락주세요.
T. 617-212-7687

North Reading에 있는 "Polished Nails"에서 함께 할 풀타임, 파트타임, 주말 타임, First shift(9:00 to 2:00) and second shift(2:00 to 7:00) 구합니다. 초보자 환영합니다.
T. 978-898-7953~4 (Anne or Katy)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무한도전' 31일 막방 확정...시즌2 및 출연진 논의는 계속

(서울=뉴스1스타) 장이름 기자 = MBC '무한도전'의 마지막 방송 일자가 확정됐다. '무한도전'은 오는 31일 마지막 방송이 전파를 탄다.

이와 관련해 권석 MBC 예능본부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태호 PD가 연출하는 '무한도전'이 오는 31일 마지막 방송을 한다"면서 "이후 편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또 권 본부장은 "현재 새 판을 짜는 중"이라며 "기존 멤버들과 다음 시즌에도 출연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우린 당연히 함께하고 싶다. 정해진 것은 없다. '무한도전' 시즌2로 같이 아예 새로운 방향으로 갈지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김태호 PD가 연출하고 기존 멤버들인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하하, 양세형, 조세호가 함께 하는 '무한도전'은 이날 13년 만에 막을 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후임으로는 최행호 PD가 연출을 맡게 되지만 김태호 PD는 크리에이터로서 '무한도전'과 계속 함께 한다.

기존 멤버들의 출연 여부는 계속해서 논의 중이나, 현재 '무한도전'의 새 제작진은 조심스럽게 새 단장을 계획 중이다. 최행호 PD 등 제작진은 여러 기획사에 새 멤버 캐



스팅 위한 조심스러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관계자는 "'무한도전' 제작진이 소속 연예인의 스케줄을 문의하고 미팅을 제안하는 등 새 멤버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유재석, 박명수, 하하, 정준하 등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원년 멤버들도 '무한도전'의 세대교체를 위해 의견을 취합했다는 사실이 지난 6일 뉴스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권석 본부장도 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MBC가 멤버들의 출연을 위해 설득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멤버들 각자 생각이 다른 만큼, 여러 방안과 가능성을 두고 설득하고 있

다는 입장이다.

'무한도전'의 새로운 변화는 올해 초부터 예고됐다. 앞서 최승호 MBC 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MBC 예능에 시즌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무한도전'도 시즌제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현재 이에 대한 여론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한도전'의 새로운 변화에 긍정적인 여론이 있는 한편, 기존 출연진과 지속적 시즌제를 이어갔으면 한다는 여론도 지배적이다. '무한도전'이 마지막 방송을 예고한 현 시점,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결정할지 더욱 주목된다.

aluemchang@news1.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라디오스타' 샘 오취리 "생각은 한국어, 영어, 가나어 순"

(서울=뉴스1스타) 김주윤 기자 = '라디오스타' 샘 오취리가 생각도 한국어로 한다고 밝혔다.

7일 방송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샘 해밍턴이 샘 오취리와 엮인 일화를 소개해 웃음을 안겼다.

샘 해밍턴은 샘 오취리가 축의금을 안 낸 일을 언급하며 "그럴 수 있다. 월리엄 돌잔치에 와서도 축의금을 안 냈다. 그런데 소

속사 사장님 결혼식 축의금은 바로 냈다"라고 꼬집었다.

샘 오취리는 가나에서도 한국 말을 쓰고 싶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생각을 한국어로 하느냐는 질문에 샘 오취리는 "한국어, 영어, 가나어 순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europa@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연어는 ‘썰면’ 인가 ‘썰면’ 인가?

전에 영어를 철자로 배운 세대와 소리로 배운 세대의 차이에 대해 말했었다. 언어는 20만 년 전부터 존재했지만, 문자는 생겨난 지 기껏해야 5천년을 넘어서지 못한다. 언어의 본질이 소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필자처럼 영어를 알파벳부터 배운 세대는 철자의 마술에 걸려 오히려 올바른 발음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철자의 간섭으로 인해 소리만 들었다면 절대로 저지르지 않을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salmon이다. 실제 발음은 [썰면]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썰면]이라 잘못 발음한다. 왜 /l/이 쓸데 없이 들어가 있냐고? 그게 바로 영어다. 영어는 발음과 철자 사이가 가장 먼 언어로 악명 높다. 과학적이라는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말에서도 발음되지 않는 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읽다’ 라고 쓰고 ‘리’ 은 발음하지 않는다. ‘값’ 이라고 쓰고 ‘스’ 은 발음하지 않는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이 겪을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서 겪는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규칙이 있을까?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지만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규칙이 있다. 후설모음 /a, u, o/ 뒤에 -lm으로 끝나면 /l/을 발음하지 않는다. 가령 palm [팜], psalm[

쌈], balm[밤], calm[칼], qualm[콰]에서 /l/은 발음되지 않는다. 명탐정 셜록 홈즈는 Sherlock Holmes라 쓰지만 /l/을 발음하지 않는다.

그럼 왜 elm은 [엘름]이라고 /l/을 발음할까? 좋은 질문이다. 전문용어로 /i, e, /를 혀의 앞쪽에서 나는 소리 즉 전설모음이라 한다. 전설모음 뒤에 오는 -lm에서는 /l/을 발음한다. film[필름], helm[헬름], 그리고 철혈제상으로 더 잘 알려진 독일 수상 Wilhelm II(빌헬름 2세)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압도하다’란 의미의 overwhelm은 어떻게 발음할까? 모음 /e/가 있으니 당연히 [오버웰름]이라고 해야 한다. 더 아리까리한 질문. ‘영역’이란 의미의 realm은 어떻게 발음할까? 전설모음 /e/와 후설모음 /a/가 함께 있지만 /a/는 음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름]이라 발음된다.

SAT에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스펠링 대회에서는 나올 수 있는 단어 culm은 어떻게 발음할까? 생긴 것과는 달리 모음 u가 /l/ 발음이기 때문에 [컬름]이라 발음한다. 영국에서 지붕을 이는데 쓰이는 식물 줄기를 haulm이라 한다. 요상하게도 au-는 /o/로 발음되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 [흠]이라 발음된다. 핀란드 출신의 저명한 언어학자인 Anders Holmberg는 필자의 지인이기도 하

고 한국에도 잘 알려진 분이다. 그런데 일부 한국인들이 그분을 자꾸 [홀름버그]라고 잘못 부르는데 영어발음은 [흠버그]이다. 노르웨이의 수도 Stockholm은 외국어니까 [스톡홀름]이라고 하지만, 이를 영어식으로 받아들이면 사정이 달라진다. 즉 접미사 -er을 붙여 Stockholmer(스톡홀름사람)로 바꾸면 [스톡홀르머]가 아니라 [스톡호머]가 된다.

골프 선수의 대명사 Arnold Palmer는 [아놀드 파머]라 발음한다. 이유는 [palm + er]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만일 palmer가 이런 구조를 가지지 않고 통째로 palmer

라면 [팔머]라 발음한다. 접미사 -er은 ‘~하는 사람’ 이니까 palm-er는 ‘방랑하는 사람, 순례자’란 뜻이다. 아놀드 파머의 조상이 ‘순례자’였는지 골프선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언어학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들이 자주 사용해서 악명을 떨친 폭탄인 네이팜(napalm) 탄은 재료 중에 팜유(palm)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정신노동을 했더니 배가 고프다. 이제 폭탄 이야기는 그만하고 오늘 저녁엔 [썰면] 대신 [썰면]을 구워먹어야겠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28) 투자에 '보장'이란 없다.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정신을 차릴 여유도 없이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하며 먹고살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 장성하고 돌아보니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평생 일한 대가로 은퇴자산을 조금 마련했습니다.

은퇴한 후 부부가 죽을 때까지 생활해야 하는 목돈입니다. 주식투자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금손실 없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투자, 죽을 때까지 생활비가 나오는 투자, 즉 한국의 연금 같은 투자를 생각해 봅니다.

보험회사는 이런 투자자의 입에 꼭 맞는 투자상품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뉴이티(Annuity)입니다. 재정설계사나 보험인은 "이 금융상품은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당신의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투자 돈도 증가한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몇 퍼센트 수입을 보장한다." 어뉴이티를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뉴이티의 단점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뉴이티라는 투자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장사가 그러하듯 상품을 팔아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재정설계사가 어뉴이티를 팔아주면 수수료(Commission)를 줍니다. 이런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판매인(Salesman)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뉴이티의 수수료가 평균 8%(New Rule's Nest Target: Annuities, WSJ, Feb. 9, 2016)라고 합니다.

어뉴이티 판매인이 받는 8% 수수료 외에 보험회사가 투자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 경비가 평균 3.61%(Money, Feb. 2012)입니다. 어뉴이티에 투자하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영어로 직접 알아봅니다. *어뉴이티나 보험회사마다 부과하는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Mortality & Expense Risk - 1.18%, *Administrative Fees - 0.14%, *Guar-

anteed Minimum Death Benefit Rider - 0.51%,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Rider - 0.84%, *Fund Expense for Underlying Funds - 0.94%) 변동성 어뉴이티나 인덱스 어뉴이티나 결국에는 뮤추얼 펀드(Subaccount)에 투자됩니다. 투자자가 어뉴이티에 투자하지 않고 뮤추얼 펀드에 직접 투자하면 어뉴이티 수수료와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벵가드 S&P 500의 투자 비용은 0.04%입니다. 지난 30년 주식시장 연평균은 약 11%입니다. 벵가드 인덱스 펀드에 30만 불 투자했다면 680만 불로 증가합니다. 어뉴이티 투자는 수수료로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250만 불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뉴이티에서 매년 부과하는 경비 때문에 무려 430만 불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점을 투자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어뉴이티에 부과되는 모든 경비를 투자자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뉴이티의 가장 큰 단점은 어뉴이티를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결정(Annuitiza-

tion)한 후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어뉴이티에 투자된 모든 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투자자가 질문하면 보험회사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하면서 남은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연금 수령자가 받는 액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보장(Guarantee)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도 간다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보장이 없습니다. 어뉴이티에서 말하는 원금 보장, 평생 생활비 보장, 고수익 보장, 등 '보장'이란 말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자식들 키우며 정신없이 산 이민 일 세대, 금융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을 이용해서 원금을 보장하며 주식시장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어뉴이티를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합니다. "너무 듣기 좋은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Too good to be true)"라는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자세를 위한
3S-스트레칭**

한국인은 새우등이 되기 쉬운 체형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신체를 펴주는 것으로 부터 등 부분에 S자를 안마시의 시점으로 포착해 스트레칭이 가능한 상태로 유도합니다.

**내 체형에 알맞게
3S-광센서 검색**

전신의 어깨 위치를 검색하여 있는 [주무름]을 핀포인트로 포착한다.

- 견인 주무름
- 목 주무름
- 견정 주무름
- 골반 마사지
- 허리 주무름
- 다리 주무름
- 팔 마사지

**기분좋은 안마의자
3S-쾌적기능**

보다 기분 좋은 마사지를 전해 드리기 위해 미세한 부분까지 쾌적함을 생각하였습니다.

**가장 편하고 쉽게
3S-기능**

어떤 사용자라도 누워서 간편히 조작 가능한 편안한 리모컨



MEDICAL CHAIR 3S
Stretch & Smooth for Smassage

당신의 신체를 위한 새로운 습관
S-레칭하다.

S-레칭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자세를 서포트하는 독자적인 스트레칭으로 복부의 유연성에 착안 스트레칭 각도와 바물을 도입하여 복부의 Inner Muscle(안쪽 근육)에 작용하는 운동이 행해집니다. 게다가 등을 펴올리는 동작에 따라 심호흡을 촉진하고 횡경막의 스트레칭도 가능하게 합니다.



“ 컴팩트한 스타일로
어떤 공간에서도 산뜻하게!”



Special Sale
~~\$6,000~~
\$4,300

“ NASA에서 개발된 우주복 재질로 전기 장치없이 보온이되며,
전문 의사가 개발하여 잠자면서 스트레칭 되는 매트리스!
60년 전통 명품 매트리스 **MAGNIFLEX**가 매트리스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누우면 몸의 곡선에 따라 편안하게 바쳐주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서서히 스트레칭시켜 줍니다”



60년 전통 이태리 **名品**
매그니 플렉스 침대

[다음과 같은 분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자고 나면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결리는 분!
- 딱딱한 O 침대를 장기간 사용후 생긴 신경통및 허리통증에 시달린 분!
- 목과 허리 디스크환자에게 스트레칭 기능으로 디스크 생성!
- 전자파에 민감하여 O 침대와 전기요등 사용시 개운하지 않은 분!

ORDER NOW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

HiTRONS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리저빌드 한양빌 내)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코리아 빌리지 1층)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한남체인 빌내)

HiTRONS
필라델피아

1222 Welsh Rd, Suite B2&B3,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아씨 플라자 필라자점)

HiTRONS
메릴랜드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Ellicott City)

HiTRONS
Mattress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인컨도넛 매점앞)
201-941-0010

신영의 **세상 스케치**

636회

옹기(甕器)같은 사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그릇은 각각의 크기와 모양 질이 다 다르다.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 그 그릇의 이름이 붙여지기도 한다. 요즘이야 보기에 예쁘고 편리한 그릇들이 얼마나 많은가. 가정을 꾸려 가는 주부들이라면 어찌 그릇에 욕심이 없을까. 가족들과 함께 사팽을 하다가 눈길만 먼저 가는 곳은 여자들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릇들이 모여진 진열장이다. 맑고 투명한 크리스탈부터 본 차이나, 도자기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종류의 그릇에 그만 매료되고 만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은 어찌 그리도 지혜로웠을까. 이 그릇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바로 그 속에 삶의 철학이, 생활 철학이 들어있음을 깨닫고 만다. 맛과 멋을 알았던 '풍류와 예술'을 삶 속에서 만나고 느끼고 누렸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또한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우리 옛 선조들의 옹기(甕器)들은 가히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릇을 만들기 위해 질흙을 사용하고 뜨거운 온도의 불가마에서 굽기를 몇 번을 해야 제구실을 할 수 있으니 어찌 이 속에 철학이 없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렇듯 옹기(甕器)를 만들기 위해서는

쉽사 1200도라는 고열의 불로 구워내며, 뜨거운 불 속을 몇 번을 드나들어야 단단하고 견고한 그릇이 되는 것이다. 옹기(甕器)가 다른 자기나 도기들에 비해 "옹기의 장점은 통기성(通氣性)에 있다. 물은 통과하지 못하지만 공기는 통과되는 그릇이 바로 옹기(甕器)의 장점이다. 주변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점이 옹기(甕器)의 위대한 점이다.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듣고 들어도 어찌 이리도 귀한 말씀일까. 우리 선조들의 그 깊은 지혜와 해박한 생활철학에 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래, 하물며 그릇 하나에도 이렇듯 귀하고 심오함이 들어있는데, 이 온 우주의 대자연과 인간이 생명으로 숨 쉬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창조주의 섭리를 그대로 느끼는 것이리라. 옹기(甕器) 하나하나에도 쓰일 목적이 있듯이 우리들 삶의 길에도 맡겨진 목적이 분명 있는 것이다. 때로는 살면서 힘겨운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많다. 어찌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이 외로움이 밀려들고 삶이 고단할 때가 있다. 남들은 모두가 '행복'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내게서

만 그 '행복'이 비껴가는 것 같은 심정일 때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달이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또 오르는 이치를 생각한다면 오늘의 힘겨운 일들이 내일의 기쁨의 행복의 일들로 이어짐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쉬이 얻어지는 것이 어디 있을까. 어느 단체든 단체장이 있기 마련이다. 단체를 이끌어가는 일이 어찌 그리 쉬운까. 단체를 이끌다보면 이러쿵 저러쿵 말들도 많고 탈들도 많은 것이 사람 사는 곳이며 모인 곳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곁에서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지는 것이다. 내가 못하는 것을 저렇게 잘하고 있으니 누가 뭐라 탓할 일인가. 곁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할 따름인 것을 말이다. 그 어떤 일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헌신으로 봉사하는 이가 있어 그 단체는 더욱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고 빛나는 것일 게다.

이렇듯 불통인 곳에 소통을 이끌어내는 리더가 있다면 더없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아픈 이들과 고통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단체이고 리더이면 좋겠다. 그것이 크기는 뉴잉글랜드의 한이들을 아우르는 총영사관과 총영사님 그 외의 영사님들이 될 수도 있고, 한인회와 한인회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의 각 한인단체의 단체장과 임원들이 된다면 좋겠다. 서로 함께 호흡하고 화합하며 소통할 수 있는 우리면 좋겠다. 네 탓보다는 내 탓이라 여기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면 좋겠다.

봄, 봄이 오고 있다. 긴 호흡의 시리고 언 땅을 뚫고 오르는 생명들의 꿈틀거림을 보며 우리도 꿈을 꾸워보는 것이다. 사람의 꿈을 꾸워보는 것이다. 답답한 숨을 후~ 뚫어 줄 수 있는 그런 옹기(甕器)같은 소통의 사람을 꿈꾸워 본다. 이 봄에는 온기 따뜻하고 숨구멍 열어줄 그런 사람을 기다려 보는 것이다. 진정한 질흙으로 빚어 뜨거운 불에 달구어진 옹기(甕器)같은 사람이길 마음으로 빌어본다. 주변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통기성(通氣性)을 가진 옹기(甕器)처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려 본다. 지혜롭고 여유로운 멋과 맛을 누릴 줄 아는 풍류의 사람들.



한담객설閑談客說: 노시老柿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창 가을이 깊어 갈적이었다. 한국을 방문 중이었다. 지방에 일이 있어 갔다가, 돌아오는 차중이었다. 차는 고속도로위를 달리고 있었다. 차창으로 어느집 감나무가 스쳐갔다. 잎사귀는 모두 떨궜다. 잘 익은 감이 두어개 달랑 가지에 달려있었다. 파란 가을하늘색과 붉은 감은 극명하게 조화했다. 아아, 감탄사가 저절로 쏟아져 나왔다. 감은 반드시 두어개 남겨야 했다. 했던가. 까치밥이라 했다. 잘 익은 감은 홍시紅柿라 한다.

노시산방老柿山房. 미술평론가 근원近園 김용준의 다른 호이다. 노시老柿라는 말이 내 눈을 잡았다. 늙은 감나무라는 말이다. 내게는 꼭

익은 감 열매로 읽힌다. 그의 글중 한 구절이다. '원래 나는 노경老境이란 경지를 펴 좋아한다. ... 노련老練이란 말도 내가 항상 사랑해 온 말이거니와, ... 노자老子를 좋아했고... 노석老石도인... 유장하고 함축있는 맛을 느끼게 한다.'

오래전이다. 달리는 한국 전철안이었다. 가방을 가슴에 안은 젊은이가 앉아 졸고 있었다. 앞에 서있던 중년여인이 투정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앉은 젊은이를 향한 불평이었고, 자리를 양보하라는 압력이었다. 가벼운 전철 흔들림만냥 투정이 계속되었다. 그닥 유쾌하게 들리지 않는었다. 옆에 앉았

던 노인이 버럭 언성을 높였다. "아줌씨는 젊어서 많이 앉아서 갔을테니, 이젠 서서 가도 돼". 주위에서 크크 웃음이 터져 나왔다. 속시원하다는 다른 표현이다. 젊은이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얼굴은 빠르고 붉게 물들었다. 청년이 가방을 챙겨 주섬주섬 일어서고 있었다. 옆 노인이 가만있지 않았다. 젊은이 팔을 잡고 눌러 앉힌 거다. 덕분에 젊은이는 내릴 정거장을 놓쳤는지도 모른다. 노인은 노시老柿일터. 하지만 말과 행동은 떨어졌었고, 오히려 걸쭉했다 해야할까?

다산 정약용의 말이다.

나는 본디 조선사람인 것을 그러므로 조선의 시를 노래하리라. 그대들도 마땅히 그대들의 시를 쓰게나

팬스레 이것 저것 시늬치 말고 (다산 정약용, 노인에게 유쾌한 일).

헤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이다. 노인의 독백이다. "I may not be as strong as I think, but I know many tricks and I have resolution." 몸은 늙어 힘은 없어도, 지혜는 늘어난다. 노인이 한마디 덧붙였을지도 모른다. "너는 늙어 봤나. 나는 젊어 봤다." 누군가 했다는 말인데, 동서고금을 통해 틀림없는 말일 게다.

덜 익은 감은 떼운데, 잘 익은 감은 흥시는 입에 달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 나서 서며 (율기 29:8)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9.99~~

\$34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백성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인테리어 (1)

중국인들이 집을 보러 갈때 꼭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 바로 풍수 전문가다.

풍수를 따져 본뒤 주택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중국인들의 주택구입 습관이다. 풍수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미신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미신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풍수를 주택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위해 인간이 오랜기간 축적해 온 일종의 삶의 지혜로 실제 생활에 접목해 볼수 있다. 영문도 모른채 실내생활이 불편했는데 간단하게 가구를 재배치하므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가 풍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회사에서는 에이전트에게 풍수에 대한 교육을 따로 시킨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풍수를 따지고 집을 산다.

'감제진지' 찾기

군가용어 중 '감제진지'(Commanding Position)란 용어가 있다. 주위의 지형을 감제할 수 있는 진지라는 뜻으로 적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한 진지다.

우리가 생활하는 집안에도 바로 이 감제진지가 있다. 다음날 컨디션을 좌우하는 침실에서 감제진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우

선이다.

풍수 이론에서는 감제진지를 찾는것이 바로 행복과 건강의 열쇠라고 설명하는데 찾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않다. 침실내에서의 감제진지는 방문에서 가장 먼 곳으로 방문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다. 풍수에서는 이곳에 침대와 책상 등을 놓아야 우리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통제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풍수 전문가들의 설명에는 간단한 원리가 있다. 밤에 자다가 방문을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해 보자. 과연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수 있을까?

밤에 잠을 자다가 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경우에도 문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와 그렇지 않은 위치 사이에는 불안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침실 구조가 감제진지를 찾기 어려운 구조라면 거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거울을 통해 출입문을 볼 수 있는 곳에 거울을 걸어 침대를 알맞게 위치시키면 감제진지가 조성된 것과 다름없다. 침실 내 침대 위치와 관련, 풍수 이론에서는 침대의 발 방향이 출입문과 일직선이 되도록 놓지말아야 한다

고 한다. 이 같은 위치를 풍수에서는 건강에 해로운 '관' 위치라고 설명한다.

그도 그럴것이 침대가 출입문과 일직선이면 문을 통해 차가운 밤 공기를 바로 접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

편안한 느낌이 나는 입구

풍수는 한마디로 '기'를 강화하기 위한 이론이다. 집안에서 나쁜 기운을 없애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풍수의 기본 이론이다. 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미신적인 느낌이 많이 풍기지만 기를 다른 '편안함'이란 단어로 표현하면 이해가 쉽다. 어떤집은 들어서서 순간 마치 오랜동안 살았던 집에 온 것처럼 포근한 집이 있지만 오래 살아도 마치 남의 집에 온 것과 같은 낯선 느낌을 주는 집이 있다. 편안한 느낌을 주는 집을 풍수에서는 좋은 기가 넘치는 집이라고 본다. 좋은 기와 나쁜 기는 바로 집 입구에서부터 결정된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좋은 기분이 느껴지면 좋은 기가 넘치는 집이라는 것이 풍수 이론의 설명이다. 가족 여러 명이 하루에도 여러번 들락날락하는 입구가 편안한 느낌을 줘야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고된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설때도 입구가 위안이 되어야 피로가 풀리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또 집을 방문하는 손님도 입구에서 부터 좋은 느낌을 받아야 집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돼 주택 가치도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편안한 느낌을 주고 '좋은 기'를 느낄 수 있는 입구를 꾸미려면 우선 매력적인 디자인의 출입문으로 교체할수 있다. 출입문 안쪽 실내에는 화분을 놓거나 차분한 느낌의 그림을 걸어 뒤도 입구 분위기를 싹 바꿀 수 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17

화랑세기(花郎世紀), 8세 풍월주(風月主) 문노(文弩)(8)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어지는 화랑세기, [개국開國4년 공이 17세에 무력을 따라 백제를 쳤다. 공이 있었는데 보답을 받지 못했으나 개의치 않았다. 5년 북한北漢으로 나가 고구려를 쳤다. 7년 국원國原으로 나갔고, 또 북가라를 쳤다. 모두 공이 있었으나, 보답을 받지 못했다. 아랫사람 중 불평하는 자가 있으면, 위로하여 말하기를 “대저 상벌이라는 것은 소인의 일이다. 그대들은 이미 나를 우두머리로 삼았는데 어찌 나의 마음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삼지 않는가?” 했다]

개국 4년은 서기 554년이다. 문노가 17세에 김무력 장군을 따라 관산성전투에 참전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운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아마도 신분상의 이유로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먼저 여기서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 장군과 백제의 성왕이 전사한 관산성 전투를 좀더 자세히 보겠다. 상황과 배경을 보면, 당시 삼국은 한강유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했다. 이 지역은 단순히 살기 좋은 고장을 넘어 신라에게는 당나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당시에는 항해술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기에 대양항해를 못하고 연안항해를 해야만 했기에, 신라로서는 당나라

를 가려면 백제의 남해와 서해를 이용해야만 했다. 이는 백제의 허락없이 불가능했기에 한강 상류지역의 땅만 차지하고 있었던 신라는 항상 한강하류지역 점령에도 눈독을 드리고 있었다.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의 성왕이 전사함으로 신라와 백제는 나제동맹의 결렬을 넘어 철천지 원수가 되었지만, 이미 그 이전에도 분열조짐은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임나와 가야의 세력을 꺾은 백제는 551년 한강 하류지역의 고구려를 공격하여 6개 군郡을 점령하였다. 이때 신라도 함께 참전하였다. 거칠부가 이끄는 신라군은 처음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다가 백제군이 승기를 잡자 대대적인 병력을 이끌고 죽령에서 고현高峴에 이르는 10개 군을 차지하였다. 하류의 요충지를 잃은 고구려는 상류의 '무익한 땅'에는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신라는 이렇게 한강 상류지역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신라는 노른자위의 땅을 백제만이 차지한데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 1년전, 550년에 백제는 달기장군으로 하여금 고구려의 도살성을 공격하여 차지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백제의 금현성을 함락하는 보복을 가했다. 하지만 두나라의 소모전을 관망하던 신라는 이사부로 하여금 출전케하여 '어부지리'로 두 성 모두 탈취하였다. 이렇게 삼국은 한강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혈전을 벌였고 가야국들과 임나 등을 놓

고 복잡한 국제관계에 얽혀있었다. 당과 교류할 수 있는 요충지를 차지한 신라는 한강하류를 신주新州로 개편하고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의 아들이자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을 군주軍主로 임명했다. 이에 백제의 성왕은 공주를 신라에 혼인까지 시키면서 타협을 모색했지만 성사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사태는 자신이 전사하는 그 비참한 기록을 남긴 554년의 '관산성 전투'로 이어졌다.

김무력(518~579년),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의 아들이다. 삼국사기에는 3남인 막내로 기록되어 있는데 차남이란 문헌도 있다. 구형왕은 532년 범흥왕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를 신라에 양여하고 신라의 진골귀족으로 편입되었다. 구형왕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세종(노리부), 무덕, 무력이 그들이다. 6세 풍월주 세종편에서 자세히 본 것처럼, 삼국사기에는 세종이 구형왕의 장남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화랑세기에는 이사부와 지소태후의 아들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노리부는 또 다른 인물이다. 노리부는 진흥왕의 왕비인 사도왕후의 오라비로서 진지왕 폐위에서 크게 활약한 인물로 등장한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실린 문무왕의 특별고서 내용을 보면 김무력이 세종의 아들로 등장한다). 김무력의 아들이 김서현이고, 서현의 아들들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김유신과 김흠순이다. 김무력은 신라의 진골로 편입된 후 무인武人으로서 이사부를 도와 북방 전투에 참전하였다. 그리고 551년 한강북부지역을 차지하고 군주軍主로 있었다. 한편 백제의 성왕은 그간 이종성을 드러낸 신라를 응징하기 위해 대가야와 연합하여 554년 신라의 관산성(충북 옥천)을 공격하였다. 당시 관산성의 군주는 우덕于德장군이었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고 거의 함락 상태에 있었다. 이에 김무력이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참전하였다. 이때 17세의 문노가 김무력을 따라 참전하여 대승을 거두는데 일조하였다. 그리고 성왕은 7월 그 전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백제 병사 2만9천여명의 수급을 배었다는 기록을 볼때 백제는 이미 쇠퇴하고 있었다. 김무력의 첫부인은 보도왕후(범흥왕의 정비, 후사가 없어서 폐출되어 비구니가 되었다)의 동생 박씨였고, 둘째부인은 아양공주인데 김서현의 어머니이다. 아양공주는 진흥왕과 사도부인의 딸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민족문화대백과 사전



또 하나의 올림픽, 또 한번의 감동



장애인 알파인 스키
Para Alpine Skiing



장애인 바이애슬론
Para Biathlon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Para Cross-Country Skiing



장애인 아이스 하키
Para Ice Hockey



장애인 스노보드
Para Snowboard



휠체어 컬링
Wheelchair Curling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Para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3.9-3.18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www.PyeongChang2018.com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ee@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2)

- 미성년자의 불로소득(Unearned Income)에 대한 과세 - Kiddie tax

(Q) 미성년자인 자녀의 소득 중 이자, 배당, 임대수입, 양도소득 등과 같은 Unearned Income에 대해서는 부모의 높은 세율로 과세된다는데, 어떻게 과세되나요?

(A) 미성년자인 자녀의 Unearned Income에 대한 과세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미성년 자녀의 이자나 배당 같은 Unearned Income이 \$2,10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의 세율로 과세한다(Form 8615).
둘째: 미성년 자녀의 소득이 오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만 구성되었으며 그 금액이 \$10,500미만이면,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여 부모가 세금계산한다. 이 경우 자녀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Form 8814).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면, 그 증여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녀가 세금을 낼 것이므로, 가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Kiddie Tax라고?

위와같이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부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시켜 그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가족전체의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방지하고자 미국세법은 'Kiddie tax'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Kiddie tax'란 미성년 자녀의 불로소득(earned income)이 일정액(\$2,100)을 초과하면, 미성년자녀의 세금계산시 \$2,100초과한unearned income에 대해서는 자녀의 세율이 아닌 부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경우 자녀의 세율로

계산한 세금이 더 크면 자녀의 세율로 계산함).

여기서 Kiddie tax가 적용되는 Unearned Income이란, 일반적으로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이라 불리는 이자소득(interest), 배당소득(dividend), 양도소득(capital gains), 임대수입(rent), 로열티, 연금수입 등을 말한다.

누가 Kiddie tax규정을 적용받나?

이 규정은 \$2,100을 초과한 unearned income(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미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표와 같다. 다만, 자녀가 결혼하여 배우자와 부부합산신고를 한 경우와 연도말에 생존한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이(연도말)	적용여부
18세 미만	항상적용
18세	자녀의 earned income이 본인 생계비의 50%이하인 경우
19세 ~ 23세	학생이며, earned income이 본인 생계비의 50%이하인 경우
23세 초과	적용하지 않음

위의 표를 보면, 23세를 초과한 자녀에게는 kiddie tax가 적용되지 않으며, 학생신분인 19세에서 23세까지의 자녀는 그의 earned income규모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Kiddie tax 적용대상 소득은?

Kiddie tax는 unearned income중 \$2,10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unearned income이더라도 \$2,100까지는 kiddie tax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earned income(근로소득 등)의 경우는 그 금액에 상관없이 kiddie tax 규정이 적용되지 않

는다.

예를 들어 17세인 자녀의 소득이 이자소득 \$2,500과 배당소득 \$1,000 그리고 근로소득 \$3,000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unearned income \$3,500(= 이자소득 \$2,500과 배당소득 \$1,000)중 \$2,100을 초과한 \$1,400만이 kiddie tax대상이며, unearned income 중 \$2,100과 근로소득 \$3,000은 kiddie tax 대상이 아니다.

Kiddie tax 계산방법은?

Kiddie tax에 대한 세금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 부모의 세율로 자녀의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는 방법(Form 8615)과

둘째: 자녀의 unearned income을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방법(Form 8814)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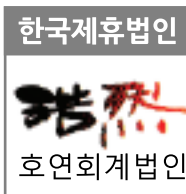
위 둘째방법, 즉 부모가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 ① 자녀의 소득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capital gain distributions와 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포함)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 ② 자녀의 총소득(gross income)이 \$10,500미만이어야 한다.
- ③ 과거의 세금과다납부액이 없어야 한다.
- ④ 중간예납세금이나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 중 earned income이 있거나 자녀의 총소득이 \$10,500을 초과하면, 반드시 자녀의 명의로 별도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2,100을 초과한 Unearned income에 대해서는 부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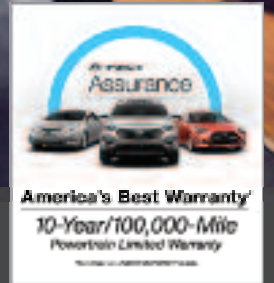
Prime Motor Group

Fast, Fair & Simple

It's time for **Prime** MOTOR GROUP



"\$0 Down Leases!"



2018 Hyundai Sonata SE

Lease: **\$9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3,190

Season of More EVENT

2018 Hyundai Elantra SE

Lease: **\$14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19,945

Season of More EVENT

2017 Hyundai Tucson SE

Lease: **\$16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4,740

Season of More EVENT

2018 Hyundai Santa Fe Sport

Lease: **\$19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7,415

Season of More EVENT

2017 Hyundai Sonata Hybrid SE

Lease: **\$21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7,885

Season of More EVENT

2017 Hyundai Santa Fe SE

Lease: **\$225/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33,700

Season of More EVENT

2017 Hyundai Veloster Value Edition

Lease: **\$239/mo.**

- 36-month lease
- 10k miles per year
- \$0 down payment
- MSRP \$22,310

Season of More EVENT

2018 CONSUMER SATISFACTION AWARD DealerRater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or 12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incentiv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Incentives,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03/31/2018.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All offers expire 03/31/2018."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을
Authorized Hyundai Dealer
833 261 7450

It's time for **Prime** MOTOR GROUP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특별가 이벤트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40대 50대도 가능한
라식라섹!!!
지금까지 미룬 라식수술의
기회가 다시 찾아
왔습니다.



1 휴람 안 종합검진 (베이직 : 소요시간 30~40분 / 프리미엄 : 1시간 30분)

40대가 되셨다구요? 눈도 몸처럼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 1) 휴람 베이직 안검진 : **10만원** (10여 가지 검사)
 - 시력상태, 백내장, 녹내장, 망막이상여부 기본질환 유무 확인
 - 기본시력검사 (나안, 안경처방, 타각적, 굴절력, 노안) + 세극등현미경, 안압, 안저촬영
- 2) 휴람 프리미엄 안검진 : **25만원** (50여 가지 검사)
 - 각막부터 시신경 망막 구석구석까지 안 정밀검진, 2년마다 한번씩은 필요합니다.
 - 휴람 베이직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 망막 + 기타 안정밀검사 포함

2 노안 잡는 노인성 백내장 수술 (노안 + 백내장 해결)

오래 사용하신 노화된 백내장 수정체 대신 깨끗한 뉴~수정체로 바꿔 시력을 되찾으세요~
신문도 보고, 컴퓨터도 보고,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1) 노안교정 백내장 : **299만원** (양안)
- 2) 다초점 인공수정체 노안 백내장 : **640만원**

3 4060 노안 라식라섹 수술 (양안)

육아와 업무로 라식기회를 놓치셨다구요?
노안이 와도 레이저 라식라섹수술로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년 프로젝트!! (노안 해결)

150만원 (프리미엄 안검사 포함)

4 2030 라식라섹 **130만원** (DNA(10만원 상당), 안종합검진 포함)

※ 수술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안 라식라섹은 당일 수술가능합니다.
※ 수술에 제반된 약값은 개인부담이며, 안종합검진 진료후 처방비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이 필요한 경우?



**육아와 업무로
라식기회를
놓치셨다면...**

20~30대 여러가지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레이저를 이용
한 노안교정이 가능합니다.



**안경과 돋보기
사용이
불편한 경우**

책과 신문, 핸드폰등을
돋보기를 통해 봐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친구보다
노안이 빨리
온 경우**

나도 모르게 온 눈의
노화현상을
개선해 드립니다.



**백내장과 함께
노안 교정을
원하실 경우**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온 경우
[렌즈삽입수술]을 통하여 백내장
을 치료하고 노안도 개선 할 수
있는 수술방법입니다.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s.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SONGLAWFIRM



트럼프가 걸어잠근

H-1B

그 열쇠가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 있습니다.

A.A.A. 전미이민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팀
 YouTube
 G
 H-1B 법률상담

취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 시대의 **H-1B**,

전공별 H-1B 성공전략을 담은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과 H-1B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H-1B 가능 전공

Computer Science / Software Engineering
 Information Systems / Technology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 Engineering

Business Administration / Marketing / Accounting
 Hospitality Business / Hotel Management
 JD / LLM / Law School

Art & Design / Fashion Design / Interior Design
 Social Sciences / Sociology / Psychology
 Physical Therapy

기업 고객

국제법	소송
금융법	이민법
노동 및 고용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보험회사 관련 소송	지적 재산법
부동산	프랜차이즈법
상법 및 M&A	

개인 고객

가정법	소송
노동 및 고용법	이민법
부동산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사고 상해	지적 재산법
상법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세금, 상속, 유언	파산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BELMONT 385 Concord Avenue, Suite 002, Belmont, MA 02478

songlawfirm1

songlawfirm LLC

songlawfirm

SONGLAWFIRM.CO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드롭스토어 총연매상 \$923,000+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보스톤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렌트 월 \$800

보스톤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20,000 노 퍼크기계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100,000 좋은 렌트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보스톤 남동쪽 동양 식당, 풀리커 면허증, 연매상-\$40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남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채중 경영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채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북쪽 드랍+웃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남쪽 팩스보로 스타디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400,000
하이드로카본 기계, 고용인(3명)+소유자(1명)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1. SAT1,2/ AP 수업 특강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풀이 중심
상시 참여와 주말 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2. 학과목 개인 수업 지도

영어, 수학,역사,과학,외국어
경제,심리, 기타 과목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4월 방학 단기 집중 프로그램

기간: 4/16(월)~4/26(토):6일

1. SAT1/ SSAT class

실력있는 강사진
각 영역별 문제 유형 분석
실전 연습 문제 풀이
단기 Test Prep 확립

2. SATII Subject Test

Math IIc, Chemistry, Biology, Physics

3. AP 전과목 및 학과목 선행

학습 지도

2018년 College Process 모집

대상: 현 11학년(Junior)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컨설팅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명확한 업무 처리

각종 경시대회 준비

수학 경시 대회
(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Biology, Chemistry, Physics)